



2017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2017. 12.

■ 책임연구 II

박 지 훈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김 유 진 (문화기획자)

2017.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영향지표』 전문가 간담회 고정참여자

2016.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책임

2016.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 PM

2015.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책임

2015.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지표 개선 연구』 책임

2006.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 공동연구원

■ 공동연구 II

이 수 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김 아 형 (문화기획자)

2017 일생활균형재단 『WLB 아카데미 시장조사 REPORT』 vol1~3 연구원

2017 구로문화재단 서남권 생활문화 연결 프로젝트 생활문화 동호회 워크숍 코디네이터

2015-2016 미디어프론트 인터랙티브 아트 콘텐츠 전시회 운영 담당

2011-2014 Culture Convenience Club Co., Ltd. 일본 츠타야 서점 빅데이터 분석

2006-2011 국제 로타리 로타액트 2820지구 (이바라키현 지구/지역사회 활동)

■ 측정틀 자문 II

이 경 용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흥 주 (서울연구원)

■ 생각모임 초청 II

김 윤 진 (前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윤 수 진 (논골문화마을 / 논골문화 도서관장)

곽 윤 부 (사랑방문화클럽 기획팀장 / 서현문화의집 관장)

이 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목차

<제목 차례>

1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성과평가 조사	1
1. 평가목적 및 방법	2
1-1. 평가목적	2
1-2. 외부 자문 내용 요약	3
1-3. 측정틀 검증 결과	4
2. 연구과정 및 평가결과	7
2-1. 연구과정 및 분석방법	7
2-2. 표본의 특성	8
2-3. 사업 참여효과	14
2-4. 현안	39
2부.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활동실태 인터뷰	40
1. 조사과정	41
1-1. 1차 연구계획	41
1-2. 연구계획의 변경	41
1-3. 인터뷰 아이디어이션	42
2. 조사 결과	43
2-1. 조사 개요	43
2-2. 인터뷰 요약	44
2-3. 재단 관계자 및 연구진 토론 요약	50
3부.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전망을 위한 생각모임	52
1. 기획의도	53
1-1. 모임 개요	53
1-2. 모임 취지	53
2. 대화 요약 및 시사점	54
2-1. 양적 확산 개발 중심 사업 모델의 한계	54
2-2. 지속가능한 사업의 재개념화와 공공성의 문제	57
2-3. 싹틔줄처럼 이어지는 관계	59
2-4. 자발성의 재개념화	61
2-5. 사람을 남기는 행정	62

4부. 결론 및 제언	63
1. 통계분석 주요 시사점	64
1-1. 측정틀 안정화 작업의 중요성	64
1-2. 생활문화 활동 진입과 장기적 참여의 효과	64
1-3. 지역/연령 간 차이의 문제	65
1-4. 리더십과 커뮤니티의 조직적 구조	66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혁신 방안	67
부록.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설문조사지	70

<표 차례>

[표 1]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과정 (2013~2017)	2
[표 2] 2016-2017측정틀 비교	5
[표 3] 성과평가 조사연구 일정	7
[표 4] 성별 및 연령	8
[표 6] 연령-거주지 교차분석	8
[표 7] 연령-거주기간 교차분석 (성남 거주자만)	9
[표 8] 참여사업 및 참여빈도	9
[표 9] 성별-사랑방 참여빈도 교차표	10
[표 10] 연령대별 마을/사랑방 참여	11
[표 11] 응답자 연령대-참여시기 교차분석	11
[표 12] 응답자 연령-참여빈도 교차분석 (마을)	11
[표 13] 연령대-참여빈도 교차분석 (사랑방)	12
[표 14] 거주지-참여사업 교차분석	12
[표 15] 거주지-참여빈도 교차분석(마을)	13
[표 16] 거주지-참여빈도 교차분석(사랑방)	13
[표 17] 사업 종합만족도	14
[표 18] 성과평가 비교 2016-2017	15
[표 19] 성별에 따른 종합만족도 차이	17
[표 20] 성별 효과 비교 (종합)	18
[표 21] 성별 효과 비교 (마을)	19
[표 22] 성별 효과 비교 (사랑방)	20
[표 23] 연령에 따른 만족도	21
[표 24] 연령대별 효과 비교 (종합)	22
[표 25] 참여사업에 따른 만족도	24
[표 26] 참여사업에 따른 효과 비교	25
[표 27]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만족도	27
[표 28]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효과 비교	28
[표 29] 지역에 따른 만족도	30
[표 30] 지역 효과 비교	31

[표 31] 활동 & 갈등인식유형	33
[표 33] 군집별 거주지 교차분석	35
[표 34] 군집별 마을/사랑방 참여 교차분석	35
[표 35] 군집별 사업 참여기간 교차분석	36
[표 36] 군집에 따른 만족도	37
[표 37] 군집별 효과 비교	37
[표 38]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수요	39
[표 39] 자유제안	39
[표 40] 각 동호회 인터뷰 및 관찰 조사 일정	43
[표 41] 생각모임 참석자에게 안내한 모임 취지	54

<그림 차례>

[그림 1] 2016-2017 사업 성과평가 비교	16
[그림 2] 연령대별 효과 비교	23
[그림 3] 참여사업에 따른 효과 비교	26
[그림 4]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효과 비교	29
[그림 5] 지역 효과 비교	32
[그림 6] 군집분석 - 4개 군집 특성	34
[그림 7] 군집별 효과 비교	38
[그림 8] 동호회 생애주기별 기초질문 아이디어이션	42
[그림 9]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조도	56

1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성과평가 조사

1. 평가목적 및 방법

1-1. 평가목적

- 성남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효과 측정을 시도했고 2014년에는 성과평가에 삶의 질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측정틀을 개발하려는 과정을 이어갔음. 2015년에는 개발된 측정틀에 따라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해 봄. 2016년 광역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지표 측정틀이 연구되었고 기존 성남 연구에 경기문화재단 연구 내용을 결합해 측정틀을 본격화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음.
- 2017년엔 지난 4년 간 평가 연구 과정을 외부 자문을 받아 검증하면서 측정틀을 안정화하는 단계를 거치고자 함. 측정틀의 안정화는 2016년 요인분석을 통해 체계화한 측정틀과 자문 내용을 반영해 수정한 설문항목으로 향후 2~3년 간 조사를 실시하고 누적된 데이터 비교를 통해 유효 측정 항목 및 안정적 지표 체계 구성 및 분석 방법을 확정하는 과정임.

[표 1]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과정 (2013~2017)

2013년	2014년	2015년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2013)』	『생활예술정책 성과지표 개선 연구 - Subjective Well Being의 관점에서』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프랑소와 마타라소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1997)』 지표 활용	⇒ 프랑소와 마타라소의 사회적 효과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생활예술 통한 행복감 측정틀 제시 색채와 자유연상에 근거한 사업 브랜드 이미지 조사	⇒ 2014년 측정틀 기반으로 설문 개발 후 현장 조사 취향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사이의 유사점/차이점 비교분석
2016년	2017년	
『2016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2017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 경기도문화재단(2016),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 측정틀 기반으로 설문 재구성 현장 조사 및 요인분석 통한 측정틀 검증	2016년 연구 외부 자문 통해 개선 및 안정화 단계	

1-2. 외부 자문 내용 요약

- 측정틀 타당성 검토 자문 1회, 설문문항 검토 자문 2회의 외부 자문을 실시함. 자문 일시는 다음과 같음.

회차	일시	자문		내용	비고
1회차	9.12	이경용 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측정틀 검토	대면 검토
2회차	10.14	김흥주 박사	서울연구원	연구 맥락 공유	대면 검토
3회차	10.19	김흥주 박사	서울연구원	설문 문항 검토	서면 검토

- 측정틀과 관련해서 요인분석한 결과를 측정틀에 반영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다만 1회 조사로는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향후 3년 반복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분석 통해 유효한 측정틀을 확정하는 방안을 권유받음.
- 측정틀은 지표 체계 뿐 아니라 지표에 따라 구성된 설문 항목과 분석 기법까지 모두 포함된 진단·분석 체계/방법론을 지칭함. 따라서 3년의 검증을 거치고 나면 확정된 진단·분석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표 체계에서는 각 문항마다 다음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1). 의도(intention)
 - (2). 목적(objection)
 - (3). 범위(대상)
 - (3-1). 포함기준(inclusion criteria)
 - (3-2). 배제기준(exclusion criteria)
 - (4). 지표(indicator) :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
 - (5). 연관 혹은 하부 질문 생성(related question)
 - (6). 분석방법
- 지표의 구성을 데이터 추적 및 분석 방법에 따라 모듈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기본변수, 주기적으로 측정해 시계열 분석을 해야 할 모듈(추이분석 등), 내용이 변경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듈(프로그램 만족도 등), 정책의 현안을 반영하는 예외적 질문을 다루는 모듈 등이 구성될 수 있음.
 - 2016년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측정틀과 실제 설문지 간 구성 일치를 권유받음. 이는 설문의 의도를 좀 더 선명히 이해하는 응답을 위한 조처임. 또한, 등간 척도의 측정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부분, 명목 척도로 되어있는 질문을 등간 척도로 바꾸면 좋을 부분 등 척도 관련 자문 내용이 있었음. 그 외, 응답자들이 설문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할 세부문항 문장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음.

1-3. 측정틀 검증 결과

- ◎ 2016년 경기문화재단 측정틀은 “2014년 3월 31일 시행된 문화기본법의 이념을 승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개념을 생활문화의 기본적 토대로 바라보면서, 장르적 구분에 포섭된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권 속의 문화적·관계적 활동(놀이 및 문화적 권리, 여가 등)으로 확장하여 탐색하”기¹⁾ 위해 시민/주민 생활문화활동 단계를 따라 지표 체계를 구성함.

- **경기문화재단 연구의 핵심 측정 개념**

- 시민/주민은 생활문화활동을 [바라고] → [만나서] → [놀고] → [배우고] → [함께 하면서] → 삶을 [복돋는]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 총 6개의 지표를 구성.

- ◎ 경기문화재단 측정틀을 기본으로 2016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시민/주민 대상 설문을 수행한 결과 측정틀 개발 연구진과 참여자 사이 인식차가 드러난 부분이 있었음.

- **[바라다] + [만나다] → [진입여건]**

- 연구진은 생활문화 진입 시기에 생활문화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먼저 발생(바라다)하고 활동 환경을 찾아 접속(만나다)할 것이라 가정하였는데 시민/주민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음.

- **[놀다] + [배우다] → [창의적 학습]**

- 연구진은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에서 놀이 효과(놀다)와 문화적 소양/기술의 습득 효과(배우다)를 구분해서 측정해보고 싶었으나, 활동 과정이 통합적이기 때문인지 시민/주민은 이 둘을 구분해 보지 않았음(창의적 학습).

- **[함께하다] → [참여와 소통] + [일반적 신뢰]**

- 연구진은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내/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성과 연대감을 익힐 것이라 가정(함께하다)했으나 시민/주민은 내집단과의 친밀감 경험(참여와 소통)이 곧바로 보편적 사회관계에 대한 신뢰감(일반적 신뢰)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지 않았음.

- ◎ 올해는 2016년 성남문화재단 측정틀을 기본으로 하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설문지 구성 및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유효한 지표와 모호한 지표가 나타남.

- **진입 여건, 창의적 학습, 개인의 행복 (유효)**

- 세 개의 지표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와 소통, 일반적 신뢰 (변화)**

- 생활문화공동체 내집단 친밀감 형성(공동체 참여), 생활문화 활동 전후 신뢰감 변화(신뢰와 소통), 사회적 관용(외집단에 대한 수용)으로 세분화됨.

1) 성남문화재단(2016), 『2016 생활문화공동체성과평가 연구』. 3p.

[표 2] 2016-2017측정틀 비교

2016 경기문화재단 측정틀	2016 성남문화재단요인분석 KMO와 Bartlett 검정 : 0.951 / 유의확률 : 0.000					2017 성남문화재단요인분석 KMO와 Bartlett 검정 : 0.952 / 유의확률 : 0.000					
	요인	공통성	요인 적재량	Cronbac h's a	문항	문항	Cronbac h's a	요인 적재량	공통성	요인	
바라다	진입 여건	0.72	0.84	0.79	활동비용 부담(-)	*개인활동비용(+)	0.86	0.55	0.59	진입 여건	
		0.52	0.71		시간부족(-)	*개인활동시간(+)		0.66	0.63		
		0.62	0.77		주위관심있는 생활문화활동없음(-)	*주변관심있는 생활문화활동(+)		0.73	0.75		
		0.60	0.76		생활문화활동 공간사용어려움(-)	*주변생활문화공간(+)		0.76	0.69		
		-	-		-	*주변사람제공 생활문화정보(+)		0.69	0.69		
-	-	-	-	리더의경청	0.43	0.51					
놀다	창의적 학습	0.73	0.77	0.93	창의성_상상력	상상력	0.92	0.65	0.63	창의적 학습	
		0.75	0.74		자기주도성_몰입	몰입		0.70	0.63		
		0.69	0.68		표현성	*표현성		0.53	0.60		
		0.62	0.66		즉흥성	*즉흥성		0.48	0.54		
		0.62	0.64		창의성_도전성	도전성		0.56	0.61		
		0.73	0.62		지식과기술	*지식과기술		0.72	0.73		
		0.68	0.59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사고		0.67	0.68		
		0.68	0.58		이해	*이해		0.69	0.71		
		0.59	0.58		취향	*취향		0.69	0.73		
함께 하다	사회 참여	0.78	0.70	0.94	타인의 행복에 기여	*타인의행복에기여	0.92	0.71	0.71	공동체 참여	
		0.75	0.63		소속감	소속감		0.73	0.73		
		0.71	0.62		한대감	한대감		0.74	0.74		
		0.76	0.61		공동체 목표	공동체목표		0.61	0.61		
		0.72	0.65		새로운관계생성	새로운관계수용		0.48	0.48		
	소통	0.70	0.61	도움을주고받는관계	-	-	-	-	-		
		0.68	0.60	타인의말을듣는태도	-	-	-	-	-		
		0.69	0.60	기존 관계 지지 강화 (가족, 친구)	-	-	-	-	-		
		0.47	0.45	생활문화사업리더그룹 의견경청여부	-	-	-	-	-		
	신뢰	일반적 신뢰	0.72	0.74	0.92	가족	*가족/친구	0.95	0.71	0.71	신뢰와 소통
			0.77	0.79		개인적 친분 (친구, 직장동료)	-		0.74	0.74	
			0.80	0.83		동네이웃	*거주지이웃		0.63	0.63	
			0.65	0.67		함께생활문화 활동하는사람	*생활문화활동동료		0.68	0.68	
0.60			0.71	성남문화재단관계자		*재단과 생활문화활동가	0.76		0.76		
0.59			0.65	처음만난낯선사람		*처음만난낯선사람	0.74		0.74		
-			-	-		*생활문화전후변화	0.45		0.45		
-			-	-		타인의말을듣는태도	0.56		0.56		
-			-	-		*친교를위한대화	0.55		0.55		
-			-	-		도움을주고받는관계					
관용	0.57	0.58	다른가치관및의견에 대한포용성	다른가치관및의견에 대한포용성	0.78	0.76	0.76	사회적 관용			
	0.63	0.7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0.57	0.57				
복돋다	행복감	0.82	0.71	0.79	전반행복감	행복변화	0.93	0.75	0.81	개인의 행복	
		0.80	0.72		건강함	건강변화		0.72	0.80		
		0.76	0.67		내삶에대한낙관성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0.68	0.74		
	0.70	0.64	정서조절력 (스트레스 대처)		정서조절력	0.72		0.77			
	0.75	0.62	공감능력		공감능력	0.59		0.74			
	0.67	0.6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0.68		0.76			

* 표시 문항 : 문맥이 작년과 다르게 읽힐 수 있을 정도로 교체된 문항과 새로 추가된 문항

- 몇몇 개의 문항은 질문 성격의 모호함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포함된 범주가 달라지기도 함.

- 리더의 경청

경기문화재단 측정틀에는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관이나 비용을 받고 활동하는 전문 활동가와의 관계 측정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6년 리더 그룹의 경청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신설함.

2016년 이 문항은 참여와 소통 쪽으로 구분되었으나 2017년엔 진입조건에 포함되었음. 요인적재량²⁾을 봤을 때 2016년은 0.45(생활문화사업리더그룹의견경청여부), 2017은 0.43(리더의 경청)으로 둘 다 높지 않은 편으로 현재 분류된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보임. 앞으로 문항을 재수정하여 정확도를 높이거나 독립적인 조사 문항으로 다루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도움을주고받는관계, 타인의말을듣는태도

해당 문항은 2016년 참여와 소통으로 분류되었으나 올해는 신뢰와 소통으로 분류됨. 2016년 이 문항들은 생활문화공동체 내집단 관계를 다루는 문항들과 묶였는데 올해는 여러 차원의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도 변화가 생겼는지 묻는 문항들과 함께 묶임.

2017 신뢰도 변화를 묻는 문항은 자문을 거쳐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척도를 다른 문항들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음. 타인의 말을 잘 듣고 도움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이 생활문화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좋은 소통은 관계의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분석이 좀 더 유의미해 보임.

- 지표 분류가 바뀐 항목은 2018년 성과평가 사업에서 중복 검증을 통해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요인적재량은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로 일종의 요인 설명력이라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의 행복(요인)에서 정서조절력(변수) 적재량은 0.72, 공감능력(변수)은 0.59일 때 개인의 행복은 공감능력보다는 정서조절력과 더 관계가 있음. 보통 변수의 적재량이 0.4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다고 봄.

2. 연구과정 및 평가결과

2-1. 연구과정 및 분석방법

◎ 연구 일정 : 2017년 9월 11일 - 12월 10일

[표 3] 성과평가 조사연구 일정

일정	자문
연구 시작 전	평가를 안정화에 대한 논의 시작 측정틀에 대한 자문을 먼저 시작
10월 중순	2016년 설문 문항 검토 자문
11월 초	설문 설계, 연구진 및 재단 검토 피드백
11월 중순	사업 참여자에게 설문 배포 및 수거
11월 말	데이터 코딩 완료
11월 말~12월 초	SPSS 분석 및 해석 작업

◎ 연구 내용 : 2016 연구 결과 승계, 현장조사 통해 측정틀 안정화, 장/단기 모듈화 작업
 • 2017년 설문은 장기 모듈화 작업에 집중
 • 장기 모듈 : 주기적인 조사 통한 시계열 측정을 위한 유효 지표 검증

◎ 응답 현황 :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참여자 총 303명 응답
 • 마을 사업 참여자 169명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자 156명
 • 두 사업 모두 참여한 응답자 포함 총 303명 응답
 ※ 2016 마을 213명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140명 (총 366 명)

◎ 분석 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군집분석
 ※ 분석의 한계
 ① 현장 조사는 조건 통제가 어렵고,
 ② 본 설문 조사는 비교적 참여가 활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③ 충분히 많은 표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엄밀한 의미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보단 경향성을 포착하는데 집중함.

2-2.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징

가. 성별, 연령, 거주지 관련 요약

- 여성, 40대 이상, 성남 원도심, 15년 이상 거주³⁾ 응답자가 많았음.

[표 4] 성별 및 연령

성별	빈도		퍼센트
	남	여	
남	59		19.5
여		233	76.9
전체	292		96.4
연령	10대	3	1.0
	20대	14	4.6
	30대	55	18.2
	40대	91	30.0
	50대	81	26.7
	60대 이상	54	17.8
	전체	298	98.3

[표 5] 거주지 및 거주기간

거주지	빈도		퍼센트
	성남신도심 (분당구/판교)	성남원도심 (중원/수정구)	
성남신도심 (분당구/판교)	76		25.1
성남원도심 (중원/수정구)		162	53.5
성남 외	53		17.5
전체	291		96.0
거주기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13	
	1~5년미만	61	20.1
	5~10년미만	50	16.5
	10~15년미만	37	12.2
	15년 이상	134	44.2
	전체	295	97.4

- 거주지별 응답자 연령대에 차이가 보임.

성남 신도심 거주자 중에는 40-50대 응답자가 많았으며 성남 원도심은 30-50대까지 비교적 고루 분포했음. 성남 외 응답자는 50대 이상에 치우쳐 있음.

[표 6] 연령-거주지 교차분석

		거주지			전체	
		성남신도심 (분당구/판교)	성남원도심 (중원/수정구)	성남 외		
연령	10대 이하	빈도	0	3	0	3
		거주지 중 %	0.0%	1.9%	0.0%	1.0%
	20대	빈도	3	6	3	12
		거주지 중 %	4.1%	3.7%	5.8%	4.2%
	30대	빈도	8	39	8	55
		거주지 중 %	10.8%	24.2%	15.4%	19.2%
	40대	빈도	23	58	9	90
		거주지 중 %	31.1%	36.0%	17.3%	31.4%
	50대	빈도	28	34	15	77
		거주지 중 %	37.8%	21.1%	28.8%	26.8%
	60대 이상	빈도	12	21	17	50
		거주지 중 %	16.2%	13.0%	32.7%	17.4%
	전체	빈도	74	161	52	287
		전체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3

3) 현재 거주지의 거주기간을 물었기 때문에 성남 내에서 여기저기 이사 다닌 경우 성남 거주기간이 훨씬 길 것임.

■ 전체 응답자 중 15년 이상 거주자가 47.4%에 이릅니다.

연령대와 거주기간 사이에 선형적 상관관계도 보임.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지에 서의 거주기간이 긴 경향성이 나타남.

[표 7] 연령-거주기간 교차분석 (성남 거주자만)

			거주기간					전체
			1년 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연령	10대 이하	빈도	0	0	1	2	0	3
		연령 중 %	0.0%	0.0%	33.3%	66.7%	0.0%	100.0%
	20대	빈도	4	2	0	0	3	9
		연령 중 %	44.4%	22.2%	0.0%	0.0%	33.3%	100.0%
	30대	빈도	3	16	7	7	14	47
		연령 중 %	6.4%	34.0%	14.9%	14.9%	29.8%	100.0%
	40대	빈도	3	13	17	13	35	81
		연령 중 %	3.7%	16.0%	21.0%	16.0%	43.2%	100.0%
	50대	빈도	0	6	12	7	37	62
		연령 중 %	0.0%	9.7%	19.4%	11.3%	59.7%	100.0%
	60대이상	빈도	0	4	4	2	22	32
		연령 중 %	0.0%	12.5%	12.5%	6.3%	68.8%	100.0%
	전체	빈도	10	41	41	31	111	234
		전체 %	4.3%	17.5%	17.5%	13.2%	47.4%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0

2. 참여사업 현황

가. 참여사업 및 참여빈도

■ 마을 사업 참여 응답자 169명,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참여 응답자 156명

참여빈도 응답을 살펴보면 마을사업 참여자는 잦은 빈도/간헐적 빈도 참여자가 고루 섞여 있는데 사랑방 사업 응답자들은 주 1회 이상 참여자가 가장 많음. 설문에 응답한 사랑방 멤버가 적극적 참여자에 치우쳤을 가능성과 발표를 전제로 한 동호회가 정기 연습을 중시할 가능성 등 고려해 표본 특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8] 참여사업 및 참여빈도

참여 여부	마을사업 참여 여부 및 빈도		사랑방 참여 여부 및 빈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참여	169	55.8	156	51.5
미참여	134	44.2	147	48.5
전체	303	100	303	100.0
참여 빈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한달1회미만	67	22.1	37	12.2
한달1~3회	46	15.2	31	10.2
주1회이상	55	18.2	87	28.7
무응답&미참여	134	44.2	148	48.8
전체	302	99.7	303	100.0

■ 사업 참여 중단한 경우 그 이유를 따로 물어보았음.

마을 : 육아(2), 비용문제(2), 사업내용이 단절된 경우(1), 의견충돌(1), 주체 불확실(1)
 사랑방 : 시간부족(1)

나. 성별 참여사업 및 참여빈도

■ 성별에 따른 참여사업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응답한 남성 중 77.4%가 주 1회 이상 참여 중이라고 응답함. 반면, 여성은 주 1회 이상 참여자가 49.2% 정도임.

마을 사업은 성별에 따른 참여빈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표 9] 성별-사랑방 참여빈도 교차표

		참여빈도_사랑방			전체
		한달1회미만	한달1~3회	주1회이상	
남	빈도	2	5	24	31
	성별 중 %	6.5%	16.1%	77.4%	100.0%
여	빈도	34	26	58	118
	성별 중 %	28.8%	22.0%	49.2%	100.0%
전체	빈도	36	31	82	149
	전체 %	24.2%	20.8%	55.0%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11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3

다. 연령대별 참여사업

■ 연령대별 참여사업 및 참여시기

20-40대 응답자 중엔 마을 사업 참여자들이 많았고 특히 30대 응답자의 78.2%가 마을 사업에 참여함. 반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과반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별 연령 특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 참여시기

20-40대는 3년 미만 참여자가 많았고 50대 이상에선 3년 이상 참여자가 많았음. 이는 50대 이상 응답자들 중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참여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별 특징이라기보다 2006년부터 꾸준히 운영된 사랑방 사업과 지역별로 다양한 사정 위에서 운영 부침을 겪은 마을 사업의 서로 다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

■ 연령대별 참여빈도

마을 사업에선 50대 응답자가 30-40대 응답자보다 활발하게 참여하였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40대 이상 응답자들에선 주 1회 이상 적극적 활동성을 보이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음.

그 외 연령대는 빈도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함.

[표 10] 연령대별 마을/사랑방 참여

			참여비교 마을사랑방			전체
			마을	사랑방	둘다참여	
연령	10대 이하	빈도	2	1	0	3
		연령 중 %	66.7%	33.3%	0.0%	100.0%
	20대	빈도	8	6	0	14
		연령 중 %	57.1%	42.9%	0.0%	100.0%
	30대	빈도	43	10	2	55
		연령 중 %	78.2%	18.2%	3.6%	100.0%
	40대	빈도	56	26	9	91
		연령 중 %	61.5%	28.6%	9.9%	100.0%
	50대	빈도	31	43	7	81
		연령 중 %	38.3%	53.1%	8.6%	100.0%
	60대이상	빈도	5	45	4	54
		연령 중 %	9.3%	83.3%	7.4%	100.0%
	전체	빈도	145	131	22	298
		전체 %	48.7%	44.0%	7.4%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0

[표 11] 응답자 연령대-참여시기 교차분석

			사업 참여시기					전체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연령	10대 이하	빈도	1	1	1	0	0	3
		연령 중 %	33.3%	33.3%	33.3%	0.0%	0.0%	100.0%
	20대	빈도	7	5	0	0	0	12
		연령 중 %	58.3%	41.7%	0.0%	0.0%	0.0%	100.0%
	30대	빈도	25	20	8	0	0	53
		연령 중 %	47.2%	37.7%	15.1%	0.0%	0.0%	100.0%
	40대	빈도	27	29	14	11	9	90
		연령 중 %	30.0%	32.2%	15.6%	12.2%	10.0%	100.0%
	50대	빈도	15	23	13	18	12	81
		연령 중 %	18.5%	28.4%	16.0%	22.2%	14.8%	100.0%
	60대이상	빈도	7	8	17	11	10	53
		연령 중 %	13.2%	15.1%	32.1%	20.8%	18.9%	100.0%
	전체	빈도	82	86	53	40	31	292
		연령 %	28.1%	29.5%	18.2%	13.7%	10.6%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0

[표 12] 응답자 연령-참여빈도 교차분석 (마을)

			참여빈도 마을				전체
			한달1회미만	한달1~3회	주1회이상	미참여	
연령	10대 이하	빈도	1	1	0	1	3
		연령 중 %	33.3%	33.3%	0.0%	33.3%	100.0%
	20대	빈도	4	0	4	6	14
		연령 중 %	28.6%	0.0%	28.6%	42.9%	100.0%
	30대	빈도	21	11	13	10	55
		연령 중 %	38.2%	20.0%	23.6%	18.2%	100.0%
	40대	빈도	27	19	19	26	91
		연령 중 %	29.7%	20.9%	20.9%	28.6%	100.0%
	50대	빈도	10	13	14	43	80
		연령 중 %	12.5%	16.2%	17.5%	53.8%	100.0%
	60대 이상	빈도	4	2	3	45	54
		연령 중 %	7.4%	3.7%	5.6%	83.3%	100.0%
	전체	빈도	67	46	53	131	297
		연령 중 %	22.6%	15.5%	17.8%	44.1%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0

[표 13] 연령대-참여빈도 교차분석 (사랑방)

		참여빈도 사랑방				전체	
		한달이하미만	한달1~3회	주1회이상	미참여		
연령	10대 이하	빈도	0	0	1	2	3
		연령 중 %	0.0%	0.0%	33.3%	66.7%	100.0%
	20대	빈도	3	3	0	8	14
		연령 중 %	21.4%	21.4%	0.0%	57.1%	100.0%
	30대	빈도	8	1	3	43	55
		연령 중 %	14.5%	1.8%	5.5%	78.2%	100.0%
	40대	빈도	8	9	18	56	91
		연령 중 %	8.8%	9.9%	19.8%	61.5%	100.0%
	50대	빈도	10	13	26	32	81
		연령 중 %	12.3%	16.0%	32.1%	39.5%	100.0%
	60대 이상	빈도	7	5	37	5	54
		연령 중 %	13.0%	9.3%	68.5%	9.3%	100.0%
	전체	빈도	36	31	85	146	298
		연령 중 %	12.1%	10.4%	28.5%	49.0%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0

라. 거주지별 참여사업 및 참여빈도

■ 신도심, 원도심 간 참여사업 차이

성남 신도심 응답자 중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 사업 참여자가 67.1%, 원도심 응답자 중엔 마을 사업 참여자가 65.4%로 나타나 참여사업 간 차이를 보여줌.

■ 거주지에 따른 사업별 참여빈도 차이

마을 사업에서 신도심 거주자들은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원도심 참여자는 적극적/간헐적 참여자가 고루 섞여 있었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 사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자가 많아 마을 사업과 대비되었음.

[표 14] 거주지-참여사업 교차분석

		참여사업			전체
		마을	사랑방	들다참여	
성남 신도심 (분당구/판교)	빈도	20	51	5	76
	거주지 중 %	26.3%	67.1%	6.6%	100.0%
	참여사업 중 %	14.1%	40.2%	22.7%	26.1%
성남 원도심 (중원/수정구)	빈도	106	40	16	162
	거주지 중 %	65.4%	24.7%	9.9%	100.0%
	참여사업 중 %	74.6%	31.5%	72.7%	55.7%
성남 외	빈도	16	36	1	53
	거주지 중 %	30.2%	67.9%	1.9%	100.0%
	참여사업 중 %	11.3%	28.3%	4.5%	18.2%
전체	빈도	142	127	22	291
	거주지 중 %	48.8%	43.6%	7.6%	100.0%
	참여사업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11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3

[표 15] 거주지-참여빈도 교차분석(마을)

			참여빈도_마을				전체
			한달1회미만	한달1~3회	주1회이상	미참여	
거주지	성남 신도심 (분당구/판교)	빈도	5	6	14	51	76
		거주지 중 %	6.6%	7.9%	18.4%	67.1%	100.0%
	성남 원도심 (중원/수정구)	빈도	47	36	38	40	161
		거주지 중 %	29.2%	22.4%	23.6%	24.8%	100.0%
	성남 외	빈도	12	3	2	36	53
		거주지 중 %	22.6%	5.7%	3.8%	67.9%	100.0%
전체		빈도	64	45	54	127	290
		거주지 중 %	22.1%	15.5%	18.6%	43.8%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접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29

[표 16] 거주지-참여빈도 교차분석(사랑방)

			참여빈도_사랑방				전체
			한달1회미만	한달1~3회	주1회이상	미참여	
거주지	성남 신도심 (분당구/판교)	빈도	12	10	34	20	76
		거주지 중 %	15.8%	13.2%	44.7%	26.3%	100.0%
	성남 원도심 (중원/수정구)	빈도	14	17	24	107	162
		거주지 중 %	8.6%	10.5%	14.8%	66.0%	100.0%
	성남 외	빈도	9	3	25	16	53
		거주지 중 %	17.0%	5.7%	47.2%	30.2%	100.0%
전체		빈도	35	30	83	143	291
		거주지 중 %	12.0%	10.3%	28.5%	49.1%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접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2-3. 사업 참여효과

1. 효과 분석 종합

가. 종합만족도

■ 2016년 종합만족도

2016년엔 종합만족도와 유사사업 참여여부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만족도는 5점 중 4.14, 유사사업 참여여부는 4.15로 나타나 매우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2017 종합만족도

2017년엔 2016년 질문에 더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 참여를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음. 종합만족도는 4.10으로 작년과 유사하였고 유사사업 참여여부는 3.98로 다소 낮아짐. 반면, 사업참여 추천의사는 4.10으로 나타나 본인의 지속적 참여보다 다른 사람들의 참여 경험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사업 종합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종합만족도	301	4.10	.688
유사사업참여의사	302	3.98	.767
사업참여추천의사	302	4.10	.724

나. 측정틀에 따른 활동 효과 분석

■ 응답자들은 문항 전반적으로 5점 만점 중 3.5~4.1 점수대를 줌.

공동체 참여 3.98 > 개인의 행복 3.95 > 신뢰와 소통 3.84 > 창의적 학습 3.80 > 사회적 관용 3.69 = 진입여건 3.69 순임. 사회적 관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작년에도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문항과 함께 가장 낮은 순위에 속하였음.

■ 행복감에 관한 문항이 높은 성과를, 진입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임.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이 더 행복해졌다는 응답⁴⁾이 4.0점을 넘으며, 개인 활동비용 3.65, 주변생활문화공간 3.46, 개인활동시간 3.3으로 가장 낮은 순위임. 특히 진입여건은 다른 지표보다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분산값이 더 큼).

4) 1순위) 행복변화 4.06 / 2순위)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4.05 / 3순위) 타인의행복에기여 4.04, 4순위) / 몰입 4.0

[표 18] 성과평가 비교 2016-2017

2016 성남문화재단요인분석				2017 성남문화재단요인분석				
요인	요인 평균	평균	문항	문항	평균	요인 평균	분산	요인
진입 여건	2.99	2.89	활동비용 부담(-)	*개인활동비용(+)	3.65	3.69	0.73	진입 여건
		3.13	시간부족(-)	*개인활동시간(+)	3.30			
		2.85	주위관심있는 생활문화활동없음(-)	*주위관심있는 생활문화활동(+)	3.74			
		3.10	생활문화활동 공간사용어려움(-)	*주변생활문화공간(+)	3.46			
		-	-	*주변사람제공 생활문화정보(+)	3.66			
		-	-	리더의경청	3.81			
창의적 학습	3.96	3.93	창의성_상상력	상상력	3.76	3.80	0.69	창의적 학습
		4.17	자기주도성_몰입	몰입	4.00			
		3.89	표현성	*표현성	3.78			
		4.00	즉흥성	*즉흥성	3.76			
		3.69	창의성_도전성	도전성	3.73			
		4.02	지식과기술	*지식과기술	3.82			
		3.97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사고	3.76			
		4.01	이해	*이해	3.78			
3.90	취향	*취향	3.83					
참여와 소통	3.93	4.00	타인의 행복에 기여	*타인의행복에기여	4.04	3.98	0.70	공동체 참여
		4.06	소속감	소속감	3.94			
		3.99	환대감	환대감	3.91			
		4.02	공동체목표	공동체목표	3.96			
		3.86	새로운관계생성	새로운관계수용	3.95			
		3.80	도움을주고받는관계	-	-			
		3.91	타인의말을듣는태도	-	-			
		3.98	기존관계지지강화 (가족, 친구)	-	-			
3.70	생활문화사업리더그룹의 의견경청여부	-	-					
일반적 신뢰	3.73	3.90	가족	*가족/친구	3.82	3.84	0.69	신뢰와 소통
		3.89	개인적 친분 (친구, 직장동료)					
		3.79	동네이웃	*거주지이웃	3.77			
		3.91	함께생활문화 활동하는사람	*생활문화활동동료	3.87			
		3.58	성남문화재단관계자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3.90			
		3.50	처음만난낯선사람	*처음만난낯선사람	3.73			
		-	-	*생활문화전후변화	3.91			
		-	-	타인의말을듣는태도	3.89			
		-	-	*친교를위한대화	3.80			
		-	-	도움을주고받는 관계생성	3.81			
		3.68	다른가치관및의견에 대한포용성	다른가치관및의견에 대한포용성	3.71			
		3.50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3.66			
개인의 행복	4.04	4.16	전반행복감	행복변화	4.06	3.95	0.69	개인의 행복
		4.09	건강함	건강변화	3.97			
		4.13	내삶에대한낙관성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4.05			
		3.96	정서조절력	정서조절력	3.86			
		3.89	공감능력	공감능력	3.85			
		4.0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3.91			

2. 성별 효과 분석

가. 성별에 따른 종합만족도

- 성별에 따른 사업만족도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성별에 따른 종합만족도 차이

		N	평균	Levene의 등분산 검정		t-검정
				F	유의확률	유의확률
종합만족도	남	59	4.14	0.66	.417	.629
	여	231	4.09			
유사사업참여의사	남	59	3.92	1.58	.209	.500
	여	232	3.99			
사업참여추천의사	남	59	4.02	1.16	.283	.333
	여	232	4.12			

나. 성별에 따른 활동 유형 및 효과 분석

■ 성별 차이 종합

대부분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형 차이 및 활동 성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잘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즐겼다는 즉흥성(여 3.79/남 3.58),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생활문화 활동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게 되었다는 공동체 목표(여 4.0/남 3.8)에서 여성의 변화가 남성보다 높았음(유의수준 10%).

■ 마을 사업에서 성별 차이

진입여건에서 리더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리더의 경청(여 3.85/남 3.57), 공동체가 환영한다고 느꼈다는 환대감(여 3.84/남 3.48), 공동체 목표에 대한 동의(여 3.91/남 3.45),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긍정적이 되었다는 새로운 관계 수용성(여 3.86/남 3.53), 타인의 말을 끊거나 비판하지 않고 듣게 되었다는 태도적 측면(여 3.81/남 3.48)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유의수준 10%).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서 성별 차이

마을과는 반대로 성별 간 차이점을 보이는 문항에서 남성들이 더 높은 평가를 내림.

활동 중 다른 일을 잊고 몰입(남 4.48/여 4.21),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상상력(남 4.23/여 3.86),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예전에 어렵던 활동과 작품을 이해(남 4.32/여 3.94) 등 학습적 측면에서 남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유의수준 10%).

생활문화 활동의 영향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이 변화했는지 묻는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일반적 믿음엔 남녀 차이가 없으나 생활 문화 전후 변화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문화를 함께 한 동료(남 4.19/여 3.69), 처음 만난 낯선 사람(남 4.16/여 3.69)에 대한 믿음 변화 차이가 남녀 간에 상당히 커 눈길을 끄. 여성은 영향을 깊숙이 주고받는 내집단과 자신과 상관없는 외집단에 대한 경계심이 모두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임(유의수준 10%).

[표 20] 성별 효과 비교 (종합)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남		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		t-검정
		N	평균	N	평균	F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59	3.58	225	3.66	2.43	.120	.525
	개인활동시간(+)	58	3.36	228	3.27	2.27	.133	.566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57	3.56	231	3.76	1.20	.275	.175
	주변생활문화공간(+)	58	3.41	229	3.45	1.32	.252	.811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57	3.58	230	3.67	1.32	.252	.536
	리더의경청	56	3.71	219	3.82	0.86	.354	.389
활동 유형	모임주도	59	3.15	229	3.13	1.94	.165	.903
	네트워크외정보확보	59	3.47	227	3.54	4.45	.036	.616
	추천과권유수용	59	3.58	233	3.76	0.26	.607	.130
	혼자취미활동과관람	59	3.37	230	3.31	0.73	.395	.694
창의적 학습	상상력	59	3.85	232	3.73	2.62	.107	.337
	몰입	59	4.02	231	4.00	0.30	.582	.861
	표현성	59	3.71	233	3.79	0.31	.579	.547
	즉흥성	59	3.58	233	3.79	2.39	.123	.083
	도전성	59	3.68	231	3.74	0.27	.606	.655
	지식과기술	59	3.80	233	3.82	1.04	.308	.885
	비판적사고	59	3.83	232	3.73	1.29	.257	.447
	이해	59	3.81	232	3.77	0.00	.978	.729
취향	59	3.88	232	3.81	2.31	.129	.553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59	4.05	231	4.02	0.25	.618	.774
	소속감	59	3.93	232	3.94	0.16	.690	.980
	한대감	59	3.81	233	3.92	0.72	.396	.360
	공동체목표	59	3.80	232	4.00	0.10	.748	.081
	새로운관계수용	58	3.86	231	3.96	0.01	.919	.412
갈등 인식 유형	불안	58	3.28	227	3.63	0.81	.370	.639
	개인책임	58	3.43	225	3.35	3.82	.052	.600
	중재욕구	58	3.67	219	3.63	1.43	.233	.776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45	3.96	191	3.86	1.67	.197	.441
	가족/친구	59	3.81	233	3.82	0.14	.709	.987
	거주지이웃	59	3.78	233	3.76	0.41	.520	.867
	생활문화활동동료	58	3.95	232	3.85	4.10	.044	.358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59	3.95	232	3.88	3.75	.054	.592
	처음만난낯선사람	59	3.85	231	3.70	3.93	.048	.212
	생활문화전후변화	59	4.02	233	3.88	1.38	.241	.244
	타인의말을듣는태도	59	3.80	232	3.90	0.44	.510	.376
	친교를위한대화	59	3.66	232	3.83	0.37	.544	.186
도움을주고받는관계	59	3.80	232	3.80	1.24	.266	.969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59	3.68	232	3.71	0.80	.373	.795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59	3.59	231	3.67	1.09	.298	.552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58	4.02	231	4.06	0.03	.865	.742
	건강변화	58	3.86	232	3.98	0.07	.788	.319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58	3.98	232	4.05	0.01	.942	.549
	정서조절력	59	3.86	233	3.85	6.90	.009	.886
	공감능력	59	3.90	231	3.82	2.46	.118	.508
	자기효능감	59	3.95	230	3.90	2.08	.150	.702

[표 21] 성별 효과 비교 (마을)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남		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		t-검정
		N	평균	N	평균	F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31	3.48	132	3.61	0.29	.588	.479
	개인활동시간(+)	30	3.20	133	3.20	2.97	.087	.983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30	3.47	133	3.77	1.18	.279	.120
	주변생활문화공간(+)	30	3.30	133	3.50	1.19	.277	.387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30	3.43	133	3.64	0.00	.999	.309
	리더의경청	30	3.57	129	3.85	0.65	.421	.099
활동 유형	모임주도	31	3.00	131	3.11	.527	.469	.640
	네트워크외정보확보	31	3.42	131	3.39	.552	.459	.878
	추천과권유수용	31	3.39	133	3.65	.153	.697	.130
	혼자취미활동과관람	31	3.39	132	3.35	.220	.640	.842
창의적 학습	상상력	31	3.52	133	3.63	1.74	.189	.477
	몰입	31	3.58	132	3.84	0.04	.849	.132
	표현성	31	3.58	133	3.65	0.21	.648	.663
	즉흥성	31	3.52	133	3.71	0.59	.445	.275
	도전성	31	3.45	133	3.62	0.29	.591	.387
	지식과기술	31	3.45	133	3.57	0.50	.481	.475
	비판적사고	31	3.55	132	3.55	1.01	.317	.979
	이해	31	3.35	133	3.58	0.05	.818	.196
취향	31	3.55	132	3.59	2.81	.096	.798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31	3.81	132	3.88	0.07	.793	.660
	소속감	31	3.55	132	3.79	0.04	.845	.177
	한대감	31	3.48	133	3.84	2.73	.101	.033
	공동체목표	31	3.45	133	3.91	0.12	.730	.004
	새로운관계수용	30	3.53	133	3.86	0.17	.677	.046
갈등 인식 유형	불안	30	3.40	127	3.30	4.464	.033	.572
	개인책임	30	3.23	127	3.36	5.813	.017	.465
	중재욕구	30	3.37	127	3.62	1.035	.311	.158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21	3.95	116	3.78	0.92	.339	.336
	가족/친구	31	3.58	133	3.77	0.37	.546	.235
	거주지이웃	31	3.65	133	3.80	0.00	.951	.325
	생활문화활동동료	30	3.67	132	3.79	0.45	.505	.460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31	3.77	133	3.90	0.00	.950	.439
	처음만난낯선사람	31	3.55	133	3.70	0.01	.916	.384
	생활문화전후변화	31	3.77	133	3.85	0.09	.768	.656
	타인의말을듣는태도	31	3.48	133	3.81	0.02	.899	.054
	친교를위한대화	31	3.61	133	3.75	0.27	.602	.423
도움을주고받는관계	31	3.71	133	3.70	0.12	.733	.954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31	3.48	133	3.65	0.02	.889	.276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31	3.58	133	3.66	0.50	.481	.612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30	3.77	133	3.95	1.18	.280	.277
	건강변화	30	3.73	133	3.87	0.81	.370	.377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30	3.90	133	3.94	0.55	.458	.812
	정서조절력	31	3.65	133	3.67	1.62	.206	.878
	공감능력	31	3.71	132	3.70	1.72	.191	.933
	자기효능감	31	3.81	131	3.73	0.41	.523	.609

[표 22] 성별 효과 비교 (사랑방)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남		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		t-검정
		N	평균	N	평균	F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31	3.68	112	3.74	3.82	0.05	.733
	개인활동시간(+)	31	3.58	114	3.39	0.46	0.50	.347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29	3.69	117	3.81	0.06	0.81	.570
	주변생활문화공간(+)	31	3.61	115	3.50	1.32	0.25	.650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29	3.76	116	3.78	4.64	0.03	.891
	리더의경청	29	3.90	108	3.79	0.03	0.87	.515
활동 유형	모임주도	31	3.29	117	3.15	1.269	.262	.581
	네트워크외정보확보	31	3.61	115	3.70	2.854	.093	.642
	추천과권유수용	31	3.84	119	3.90	3.269	.073	.717
	혼자취미활동과관람	31	3.42	117	3.28	0.51	.821	.551
창의적 학습	상상력	31	4.23	118	3.86	3.09	0.08	.022
	몰입	31	4.48	117	4.21	0.52	0.47	.061
	표현성	31	3.87	119	3.95	0.05	0.82	.641
	즉흥성	31	3.68	119	3.89	1.35	0.25	.214
	도전성	31	3.94	117	3.90	1.78	0.18	.842
	지식과기술	31	4.16	119	4.08	3.61	0.06	.621
	비판적사고	31	4.13	118	3.92	2.00	0.16	.216
	이해	31	4.32	118	3.94	1.58	0.21	.033
공동체 참여	취향	31	4.23	118	4.06	0.80	0.37	.319
	타인의행복에기여	31	4.29	117	4.21	1.27	0.26	.568
	소속감	31	4.29	118	4.14	1.29	0.26	.374
	한대감	31	4.16	119	4.02	1.55	0.22	.355
	공동체목표	31	4.16	118	4.15	12.56	0.00	.942
갈등 인식 유형	새로운관계수용	31	4.16	117	4.04	1.01	0.32	.443
	불안	31	3.16	119	3.97	.640	.425	.566
	개인책임	31	3.61	117	3.33	1.962	.163	.187
신뢰와 소통	중재욕구	31	3.94	111	3.69	6.286	.013	.134
	신뢰_종합	26	4.00	90	3.93	1.29	0.26	.685
	가족/친구	31	4.06	119	3.86	1.60	0.21	.223
	거주지이웃	31	3.90	119	3.69	2.33	0.13	.212
	생활문화활동동료	31	4.19	119	3.89	2.44	0.12	.051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31	4.10	118	3.87	5.33	0.02	.123
	처음만난낯선사람	31	4.16	117	3.69	14.41	0.00	.000
	생활문화전후변화	31	4.26	119	3.90	1.37	0.24	.031
	타인의말을듣는태도	31	4.13	118	3.99	0.19	0.66	.387
사회적 관용	친교를위한대화	31	3.71	118	3.91	0.02	0.88	.262
	도움을주고받는관계	31	3.90	118	3.90	3.13	0.08	.978
개인의 행복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31	3.87	118	3.77	5.89	0.02	.461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31	3.65	117	3.65	0.47	0.50	.981
	행복변화	31	4.26	117	4.21	0.73	0.40	.772
	건강변화	31	4.00	118	4.10	3.93	0.05	.485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31	4.06	118	4.19	1.47	0.23	.365
	정서조절력	31	4.10	119	4.06	9.83	0.00	.764
	공감능력	31	4.10	117	3.95	2.05	0.15	.369
	자기효능감	31	4.13	117	4.09	2.52	0.11	.785

3. 연령별 효과 분석

가. 연령에 따른 종합만족도

- **연령에 따른 사업만족도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40대, 60대 이상은 5점 만점 중 4점 이상으로 응답함. 본인이 유사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는 20대가 가장 강했음. 40대와 60대 이상은 향후 본인의 참여 의사보다 타인에게 사업 참여를 권하려는 의사가 더 높았음.

[표 23] 연령에 따른 만족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종합만족도	14	4.14	54	3.98	91	4.08	80	4.08	54	4.20	0.866	0.485	0.570
유사사업참여의사	14	4.21	54	4.00	91	3.98	81	3.91	54	3.98	0.673	0.611	0.750
사업참여추천의사	14	4.00	54	3.96	91	4.18	81	4.06	54	4.15	1.276	0.280	0.464

나. 연령에 따른 활동 유형 및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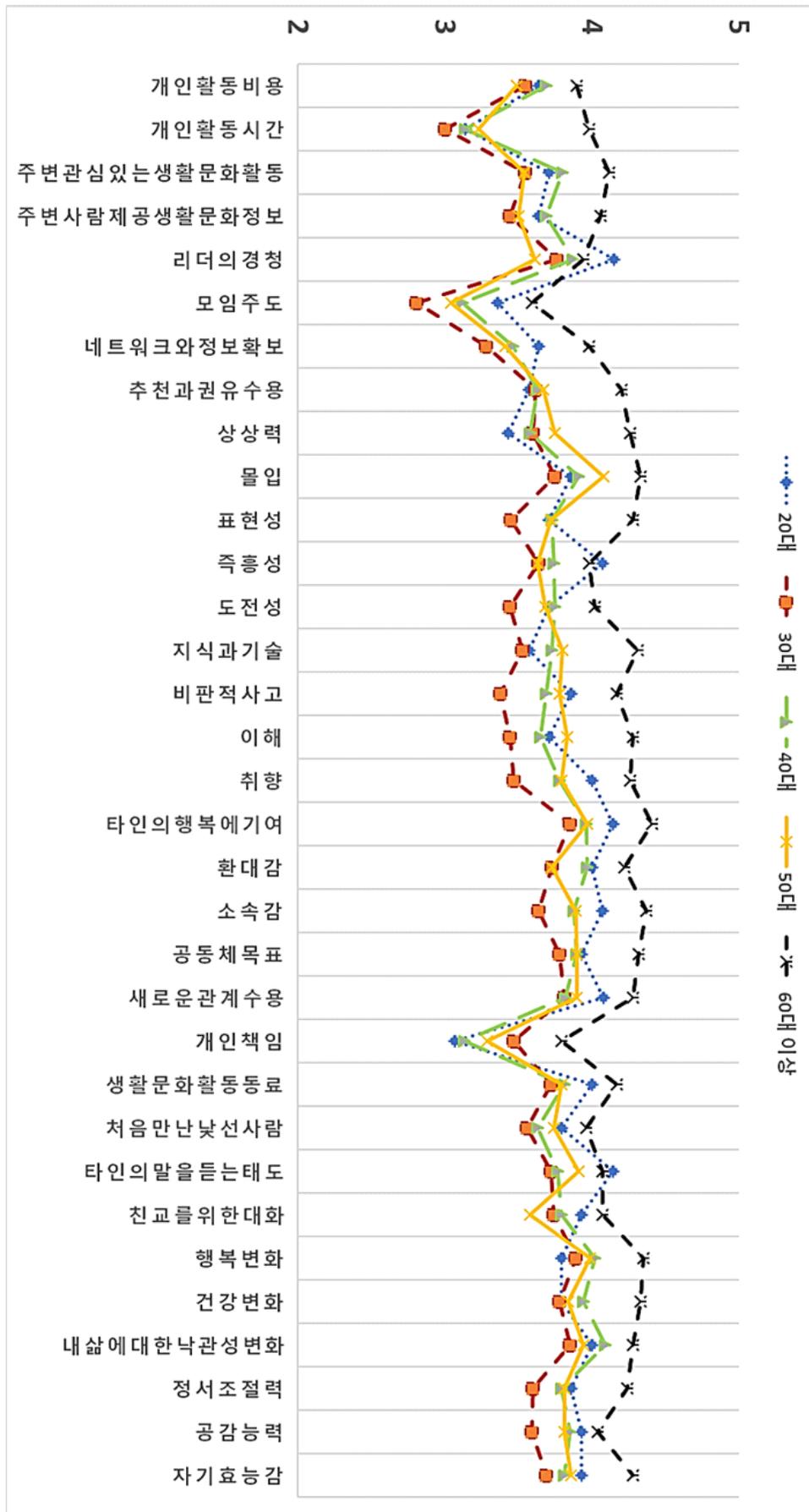
- **연령은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효과의 주요한 변수**
설문 응답에서 10대 응답빈도 3뿐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신뢰와 소통, 사회적 관용 제외한 대다수 설문 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사업 효과 차이가 존재했음(유의수준 10%).
-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가장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또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의 대부분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 평가를 내려서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시니어에게 강점을 발휘하는 사업이란 점을 알 수 있었음.
- **20대가 특징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문항**
다만, 리더의 경청, 즉흥성, 타인의 말을 듣는 태도의 세 문항은 20대가 가장 긍정적 평가를 내렸는데 리더의 경청 문항은 사업을 주도하는 재단 및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즉흥성은 만족하는 활동의 성격을, 타인의 말을 듣는 태도는 기본적인 예의범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 20대의 이러한 두드러짐은 선진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참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⁵⁾

5) 리더의경청, 즉흥성 문항은 분산 동질성 검정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비모수 검정을 추가 수행함. 그 결과 연령대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Brown-Forsythe 0.05 이하).

[표 24] 연령대별 효과 비교 (종합)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14	3.64	53	3.55	90	3.69	78	3.49	52	3.90	1.594	0.176	0.136
	개인활동시간	14	3.14	55	3.00	90	3.14	77	3.23	53	3.98	1.228	0.299	0.000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14	3.71	55	3.55	90	3.80	80	3.54	51	4.12	2.037	0.089	0.011
	주변생활문화공간	14	3.71	55	3.25	91	3.36	78	3.45	52	3.75	1.529	0.194	0.167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14	3.64	55	3.44	90	3.69	80	3.50	51	4.06	1.267	0.283	0.015
	리더의경청	13	4.15	54	3.76	85	3.87	74	3.61	51	3.94	3.127	0.015	0.075
활동 유형	모임주도	14	3.36	54	2.81	91	3.12	78	3.04	54	3.59	0.739	0.566	0.013
	네트워크와정보확보	14	3.64	53	3.28	91	3.46	76	3.41	54	3.98	0.453	0.770	0.001
	추천과권유수용	14	3.57	55	3.62	91	3.63	81	3.67	54	4.20	1.141	0.337	0.000
	혼자취미활동과관람	14	3.57	54	3.31	91	3.33	79	3.20	54	3.44	1.649	0.162	0.631
창의적 학습	상상력	14	3.43	55	3.60	91	3.58	80	3.75	54	4.26	7.021	0.000	0.000
	몰입	14	3.86	55	3.75	91	3.91	79	4.08	54	4.33	1.506	0.201	0.003
	표현성	14	3.71	55	3.45	91	3.73	81	3.72	54	4.28	1.712	0.147	0.000
	즉흥성	14	4.07	55	3.64	91	3.74	81	3.63	54	3.98	2.983	0.019	0.083
	도전성	14	3.71	55	3.44	91	3.75	79	3.68	54	4.02	1.514	0.198	0.035
	지식과기술	14	3.57	55	3.53	91	3.73	81	3.80	54	4.31	3.348	0.011	0.000
	비판적사고	14	3.86	55	3.38	90	3.69	81	3.78	54	4.17	0.335	0.854	0.000
	이해	14	3.71	55	3.44	91	3.65	81	3.83	53	4.28	0.795	0.529	0.000
취향	14	4.00	55	3.47	91	3.78	80	3.79	54	4.26	1.598	0.175	0.000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14	4.14	55	3.85	91	3.96	79	3.97	54	4.41	0.232	0.920	0.002
	환대감	14	4.00	55	3.73	91	3.97	81	3.73	54	4.22	0.682	0.605	0.003
	소속감	14	4.07	55	3.64	91	3.88	80	3.89	54	4.37	0.184	0.946	0.000
	공동체목표	14	3.93	55	3.78	91	3.90	80	3.90	53	4.32	0.393	0.813	0.005
	새로운관계수용	13	4.08	54	3.81	91	3.82	81	3.90	53	4.28	0.371	0.829	0.006
갈등 인식 유형	불안	14	3.79	52	3.42	87	3.16	79	3.10	54	4.89	2.433	0.048	0.301
	개인책임	14	3.07	51	3.47	88	3.13	79	3.29	53	3.79	0.896	0.467	0.003
	중재욕구	14	3.71	52	3.56	86	3.50	78	3.69	49	3.84	1.590	0.177	0.267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13	3.69	51	3.76	79	3.92	61	3.85	35	3.91	0.905	0.462	0.646
	가족/친구	14	3.86	55	3.73	91	3.74	81	3.77	54	4.00	1.005	0.405	0.328
	거주지이웃	14	3.93	55	3.69	91	3.73	81	3.67	54	3.98	1.615	0.171	0.185
	생활문화활동동료	14	4.00	54	3.72	90	3.81	81	3.79	54	4.17	0.571	0.684	0.022
	처음만난낯선사람	14	3.79	55	3.56	91	3.63	80	3.74	53	3.96	1.866	0.116	0.099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14	3.93	55	3.78	91	3.87	81	3.85	53	4.09	1.078	0.367	0.362
	생활문화전후변화	14	3.93	55	3.73	91	3.82	81	3.91	54	4.13	0.115	0.977	0.121
	타인의말을듣는태도	14	4.14	54	3.72	91	3.77	81	3.91	54	4.07	0.739	0.566	0.075
	친교를위한대화	14	3.93	54	3.74	91	3.79	81	3.58	54	4.07	1.053	0.380	0.023
도움을주고받는관계	14	3.86	54	3.72	91	3.78	81	3.69	54	4.06	1.436	0.222	0.181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14	3.93	55	3.58	91	3.68	81	3.65	53	3.91	1.341	0.255	0.155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14	4.07	55	3.53	91	3.67	80	3.58	53	3.75	0.860	0.488	0.185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14	3.79	54	3.89	90	4.02	80	3.99	54	4.35	0.983	0.417	0.018
	건강변화	14	3.79	54	3.78	90	3.94	81	3.84	54	4.33	0.931	0.446	0.001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14	4.00	54	3.85	90	4.09	81	3.94	54	4.28	1.102	0.356	0.041
	정서조절력	14	3.86	55	3.60	91	3.79	81	3.81	54	4.24	0.105	0.981	0.001
	공감능력	14	3.93	54	3.59	91	3.85	80	3.81	54	4.04	2.018	0.092	0.057
	자기효능감	14	3.93	54	3.69	89	3.81	80	3.86	54	4.28	0.313	0.869	0.001

[그림 2] 연령대별 효과 비교



4. 사업별 활동 효과 분석

가. 참여사업에 따른 종합만족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만족도가 마을 사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그러나 표본의 특성을 보았을 때 사랑방 응답자들이 적극적 참여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음. 적극적/간헐적 참여자가 두루 섞인 마을 사업 만족도는 3.99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적극적 참여자 뿐 아니라 평균적인 참여자들도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25] 참여사업에 따른 만족도

	마을		사랑방		둘다참여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종합만족도	146	3.99	133	4.25	22	3.86	0.321	0.726	0.002
유사사업참여의사	146	4.01	134	3.98	22	3.82	0.684	0.505	0.535
사업참여추천의사	146	4.04	134	4.17	22	4.09	0.205	0.815	0.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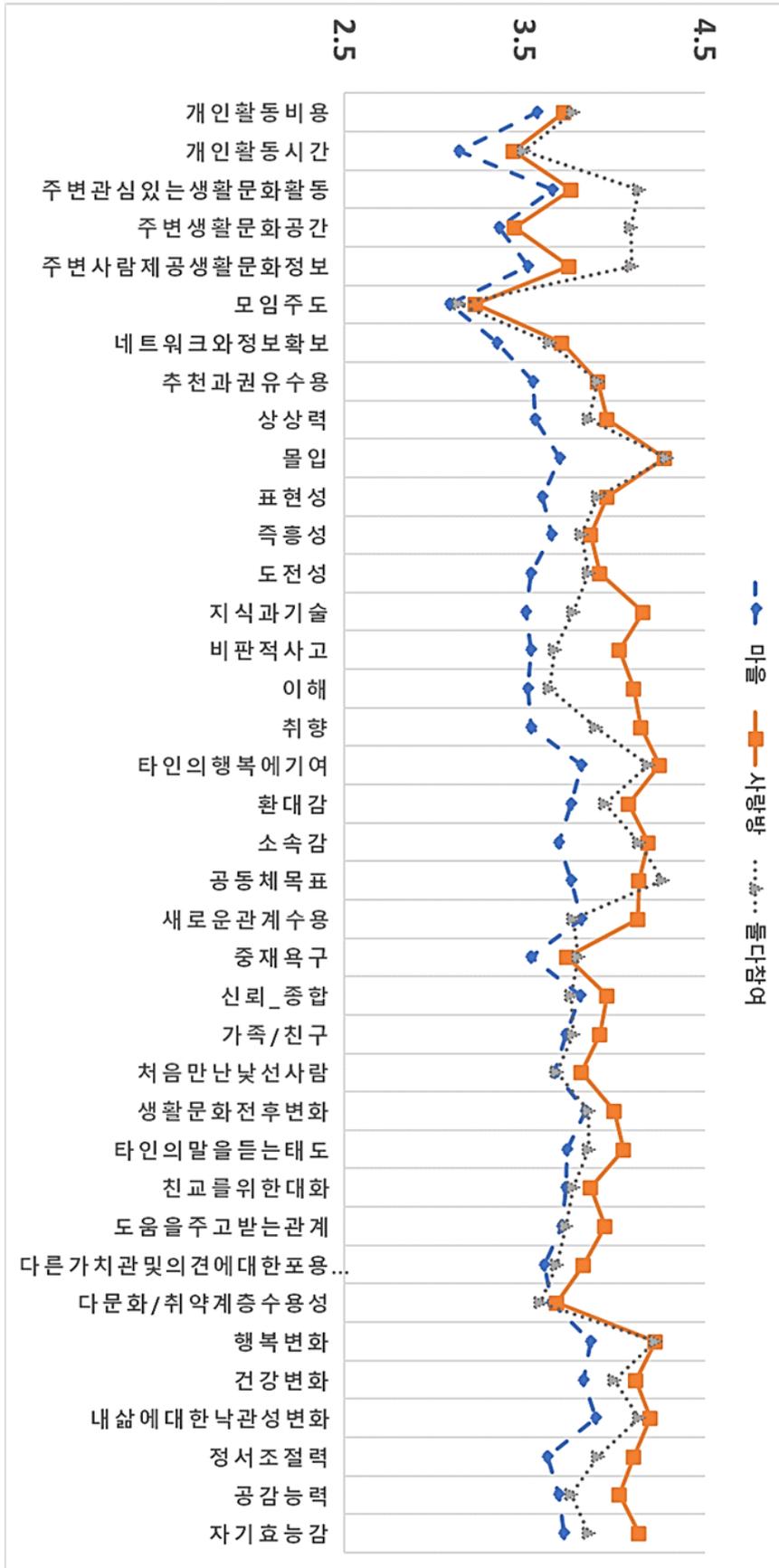
나. 참여사업에 따른 활동 유형 및 효과 분석

- 사랑방 참여자들이 사업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대다수 설문 항목에서 참여사업에 따른 효과 차이가 존재했음(유의수준 10%). 사랑방 사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참여자가 많은 사랑방 사업 응답자의 표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음.
- 두 개의 사업 모두 참여한 경우
마을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둘 다 참여한 응답자들은 각각의 사업에만 참여한 경우보다 진입여건 문항에서 높은 평가를 내림. 특히, 생활문화활동을 하는 주변 사람과 공간, 프로그램 등의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 이들은 몰입, 표현성, 즉흥성, 공동체 목표에 동의, 중재 욕구 등에서 사랑방 사업 참여자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효과를 보았다고 답하였음.

[표 26] 참여사업에 따른 효과 비교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마을		사랑방		둘다참여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146	3.57	127	3.72	22	3.77	1.436	0.240	0.000
	개인활동시간	146	3.14	129	3.44	22	3.50	0.769	0.464	0.000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146	3.66	131	3.76	21	4.14	0.595	0.552	0.000
	주변생활문화공간	146	3.36	130	3.45	22	4.09	1.911	0.150	0.000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147	3.52	130	3.75	21	4.10	1.461	0.234	0.000
	리더의경청	142	3.80	121	3.82	21	3.86	0.666	0.515	0.272
활동 유형	모임주도	145	3.09	132	3.23	22	3.14	1.004	0.368	0.000
	네트워크와정보확보	145	3.35	129	3.71	22	3.64	4.171	0.016	0.000
	추천과권유수용	147	3.55	134	3.91	22	3.91	4.478	0.012	0.000
	혼자취미활동과관람	146	3.34	132	3.32	22	3.45	4.387	0.013	0.881
창의적 학습	상상력	147	3.56	133	3.96	22	3.86	2.181	0.115	0.000
	몰입	147	3.70	133	4.28	21	4.29	1.792	0.168	0.000
	표현성	147	3.60	134	3.96	22	3.91	2.113	0.123	0.000
	즉흥성	147	3.65	134	3.87	22	3.82	1.498	0.225	0.000
	도전성	147	3.54	132	3.92	22	3.86	1.667	0.191	0.001
	지식과기술	147	3.51	134	4.16	22	3.77	0.048	0.953	0.000
	비판적사고	147	3.54	134	4.03	21	3.67	1.300	0.274	0.000
	이해	147	3.52	133	4.11	22	3.64	0.114	0.892	0.000
	취향	147	3.54	134	4.15	21	3.90	0.487	0.615	0.000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147	3.82	133	4.25	21	4.19	0.308	0.735	0.009
	환대감	147	3.76	134	4.08	22	3.95	2.407	0.092	0.007
	소속감	147	3.69	134	4.19	21	4.14	1.408	0.246	0.000
	공동체목표	147	3.76	132	4.14	22	4.27	0.247	0.782	0.000
	새로운관계수용	146	3.82	132	4.13	22	3.77	0.340	0.712	0.027
갈등 인식 유형	불안	138	3.28	134	3.84	22	3.55	0.804	0.449	0.720
	개인책임	139	3.33	132	3.43	22	3.32	1.066	0.346	0.171
	중재욕구	139	3.54	128	3.74	20	3.80	0.272	0.762	0.008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124	3.81	103	3.96	17	3.76	1.549	0.215	0.057
	가족/친구	147	3.73	134	3.92	22	3.77	0.642	0.527	0.052
	거주지이웃	147	3.79	134	3.77	22	3.64	1.261	0.285	0.122
	생활문화활동동료	145	3.78	134	4.01	22	3.68	2.262	0.106	0.323
	처음만난낯선사람	147	3.67	132	3.82	22	3.68	0.828	0.438	0.024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147	3.87	133	3.92	22	3.91	0.107	0.898	0.235
	생활문화전후변화	147	3.84	134	4.00	22	3.86	0.047	0.954	0.018
	타인의말을듣는태도	147	3.74	133	4.05	22	3.86	2.670	0.071	0.027
	친교를위한대화	147	3.73	133	3.87	22	3.77	0.190	0.827	0.023
도움을주고받는관계	147	3.71	133	3.95	22	3.73	3.142	0.045	0.013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147	3.61	133	3.83	22	3.68	0.578	0.562	0.042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147	3.65	132	3.68	22	3.59	1.334	0.265	0.016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146	3.87	132	4.23	22	4.23	0.332	0.718	0.012
	건강변화	146	3.83	133	4.12	22	4.00	0.341	0.711	0.002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146	3.90	133	4.20	22	4.14	0.619	0.539	0.016
	정서조절력	147	3.63	134	4.11	22	3.91	0.214	0.808	0.000
	공감능력	147	3.69	133	4.03	21	3.76	1.219	0.297	0.000
	자기효능감	145	3.72	133	4.14	21	3.86	0.791	0.454	0.002

[그림 3] 참여사업에 따른 효과 비교



다.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종합만족도

-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유사사업참여의사, 사업참여추천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27]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만족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종합만족도	82	4.01	89	4.01	53	4.15	40	4.20	31	4.32	3.050	0.017	0.132
유사사업참여의사	82	3.96	90	3.86	53	4.08	40	4.00	31	4.19	1.382	0.240	0.222
사업참여추천의사	82	4.04	90	4.00	53	4.04	40	4.33	31	4.39	3.891	0.004	0.022

라.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활동 유형 및 효과 분석

- 대부분 문항에서 10년 차 이상 응답자가 사업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함.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유의수준 10%).

- 진입여건에서 5년차 이상과 미만이 큰 차이를 보임.

5년 차 이상 응답자들은 5년 미만 응답자들에 비해 진입여건 문항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취득하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진입여건 중에서 주변 생활문화 공간과 개인 활동시간은 낮은 점수를 받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으로 보임.

- 활동 형태 및 과정에서도 5년차 이상과 미만이 차이가 있음.

활동 유형, 창의적 학습, 공동체 참여는 사업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지표로 활동 형태와 활동 과정에서 사업 참여 기간이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변화(사업의 영향력)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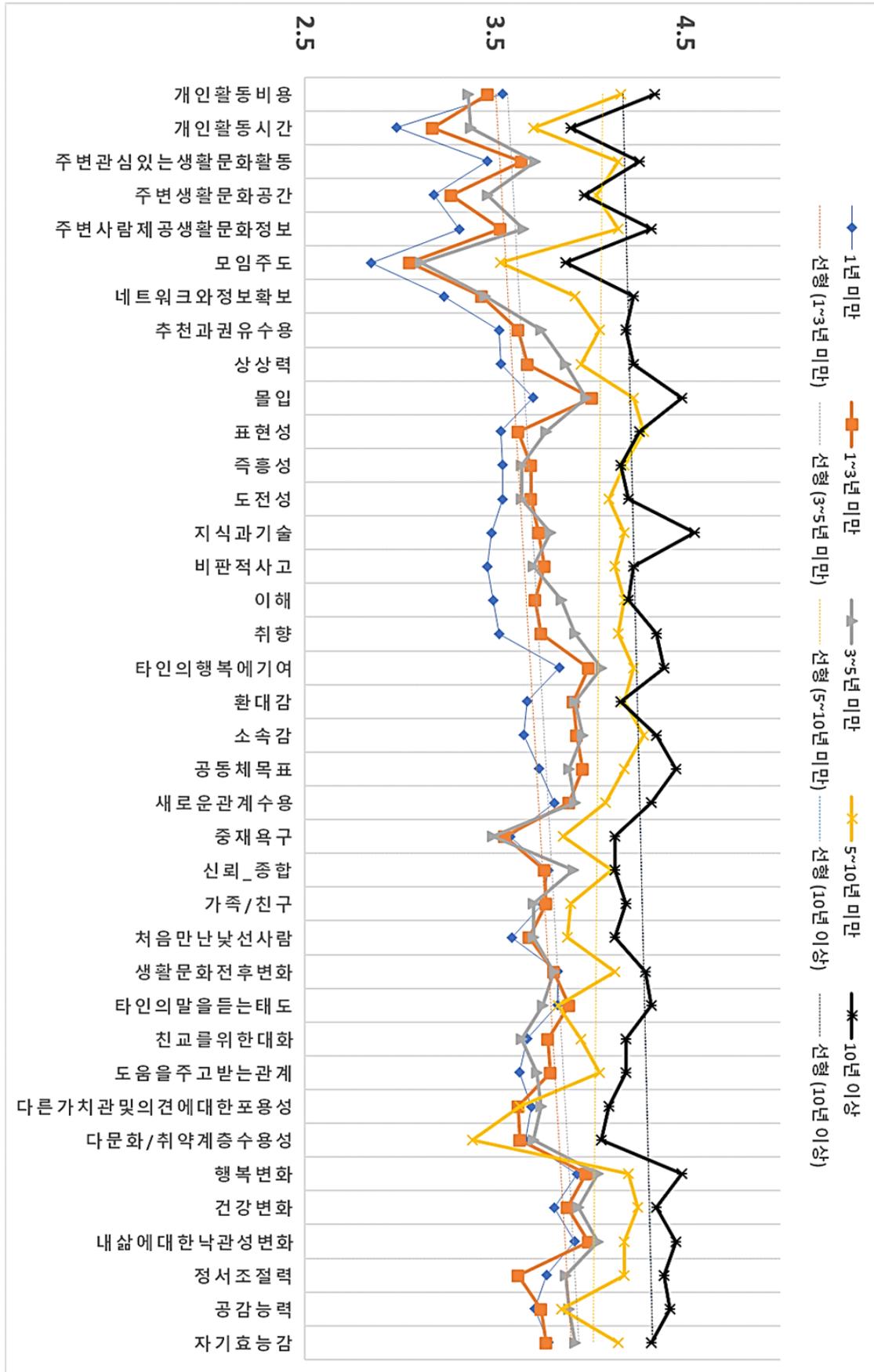
진입여건이나 사업의 활동 과정에 비해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지점들 -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행복해졌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사업 참여 기간에 따른 차이의 폭이 작았음.

5년 차 미만에서는 거의 점수 차이가 없었고, 5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가면서 점수가 올랐는데 이는 공동체 사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표 28]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효과 비교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81	3.54	89	3.46	53	3.36	37	4.16	29	4.34	0.762	0.551	0.000
	개인활동시간	83	2.98	89	3.17	52	3.37	37	3.70	30	3.90	0.835	0.504	0.000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82	3.46	89	3.64	52	3.71	39	4.15	31	4.26	2.019	0.092	0.000
	주변생활문화공간	82	3.18	90	3.27	52	3.46	38	4.03	30	3.97	0.787	0.534	0.000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83	3.31	88	3.53	52	3.65	39	4.15	31	4.32	1.462	0.214	0.000
	리더의경청	75	3.75	88	3.74	50	3.90	39	3.79	26	4.12	2.079	0.084	0.272
활동 유형	모임주도	81	2.85	88	3.05	53	3.11	40	3.53	31	3.87	0.197	0.940	0.000
	네트워크와정보확보	81	3.23	87	3.43	53	3.45	39	3.92	30	4.23	0.326	0.861	0.000
	추천과권유수용	83	3.52	90	3.62	53	3.74	40	4.05	31	4.19	1.268	0.283	0.000
	혼자취미활동과관람	82	3.24	88	3.36	53	3.36	40	3.38	31	3.45	0.778	0.540	0.881
창의적 학습	상상력	83	3.53	89	3.67	53	3.87	40	3.95	31	4.23	0.307	0.873	0.000
	몰입	83	3.70	89	4.01	53	3.98	39	4.23	31	4.48	1.290	0.274	0.000
	표현성	83	3.53	90	3.62	53	3.77	40	4.28	31	4.26	1.334	0.257	0.000
	즉흥성	83	3.54	90	3.69	53	3.64	40	4.18	31	4.16	2.080	0.083	0.000
	도전성	83	3.54	89	3.69	53	3.64	40	4.10	30	4.20	0.129	0.972	0.001
	지식과기술	83	3.48	90	3.73	53	3.79	40	4.18	31	4.55	0.874	0.480	0.000
	비판적사고	82	3.46	90	3.76	53	3.70	40	4.13	31	4.23	0.860	0.488	0.000
	이해	83	3.49	90	3.71	53	3.85	40	4.18	30	4.20	0.236	0.918	0.000
취향	83	3.52	90	3.74	53	3.92	39	4.15	31	4.35	1.185	0.317	0.000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81	3.84	90	3.99	53	4.06	40	4.23	31	4.39	2.399	0.050	0.009
	환대감	83	3.67	90	3.91	53	3.92	40	4.18	31	4.16	1.055	0.379	0.007
	소속감	83	3.65	90	3.93	53	3.96	39	4.28	31	4.35	4.062	0.003	0.000
	공동체목표	83	3.73	89	3.96	53	3.89	39	4.18	31	4.45	1.606	0.173	0.000
	새로운관계수용	80	3.81	90	3.89	53	3.92	40	4.08	31	4.32	1.183	0.318	0.027
갈등 인식 유형	불안	78	3.27	87	4.21	52	3.21	40	3.20	31	3.58	1.012	0.401	0.720
	개인책임	79	3.34	85	3.28	52	3.40	40	3.35	31	3.81	0.273	0.895	0.171
	중재욕구	79	3.58	85	3.55	51	3.49	35	3.86	31	4.13	0.663	0.618	0.008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68	3.78	76	3.76	44	3.91	27	4.11	24	4.13	1.158	0.330	0.057
	가족/친구	83	3.75	90	3.77	53	3.70	40	3.90	31	4.19	1.220	0.302	0.052
	거주지이웃	83	3.66	90	3.73	53	3.68	40	3.90	31	4.06	1.082	0.366	0.122
	생활문화활동동료	82	3.76	89	3.87	53	3.87	40	3.95	31	4.10	1.222	0.302	0.323
	처음만난낯선사람	82	3.59	90	3.68	53	3.70	40	3.88	30	4.13	0.554	0.696	0.024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83	3.84	90	3.81	53	3.85	40	4.03	30	4.17	0.780	0.539	0.235
	생활문화전후변화	83	3.83	90	3.81	53	3.81	40	4.13	31	4.29	0.513	0.726	0.018
	타인의말을듣는태도	82	3.83	90	3.89	53	3.75	40	3.83	31	4.32	1.020	0.397	0.027
친교를위한대화	82	3.67	90	3.78	53	3.64	40	3.95	31	4.19	0.888	0.471	0.023	
도움을주고받는관계	82	3.63	90	3.79	53	3.72	40	4.05	31	4.19	1.133	0.341	0.013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호용성	83	3.69	89	3.62	53	3.74	40	3.63	31	4.10	3.126	0.015	0.042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83	3.66	88	3.63	53	3.70	40	3.38	31	4.06	0.714	0.583	0.016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82	3.93	88	3.98	53	4.04	40	4.20	31	4.48	1.848	0.120	0.012
	건강변화	83	3.81	88	3.88	53	3.94	40	4.25	31	4.35	1.662	0.159	0.002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83	3.92	88	3.99	53	4.04	40	4.18	31	4.45	0.781	0.539	0.016
	정서조절력	83	3.77	90	3.62	53	3.87	40	4.18	31	4.39	1.196	0.313	0.000
	공감능력	83	3.71	89	3.74	53	3.89	39	3.85	31	4.42	2.098	0.081	0.000
	자기효능감	82	3.78	88	3.77	52	3.92	40	4.15	31	4.32	2.812	0.026	0.002

[그림 4]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효과 비교



5. 지역별 효과 분석

가. 종합만족도

■ 상대적으로 낮은 성남 원도심 만족도

원도심은 신도심과 성남 외에 비해 종합만족도가 낮음(유의수준 5%).

본인의 유사사업 참여 의사와 타인에게 사업 참여를 권하겠단 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9] 지역에 따른 만족도

	성남신도심 (분당구/판교)		성남원도심 (중원/수정구)		성남 외		분산의 등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종합만족도	76	4.28	162	3.99	51	4.14	2.088	0.126	0.012
유사사업참여의사	76	4.04	162	3.96	52	3.96	1.152	0.318	0.732
사업참여추천의사	76	4.24	162	4.02	52	4.12	1.411	0.246	0.112

나. 지역에 따른 활동 유형 및 효과 분석

■ 지역 역시 연령, 참여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효과의 주요한 변수임.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서 연령, 참여사업, 지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임. 신도심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 강세이면서 참여 연령도 높은 편이고 원도심은 보다 30-40대 사회 허리층이 주축을 이루면서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의 내용적 차이와 더불어 이러한 참여자 연령 및 거주환경 차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명백한 효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성남 신도심에서 더 효과 있게 나타남.

거의 대다수 문항에서 성남 신도심 응답자들이 원도심 응답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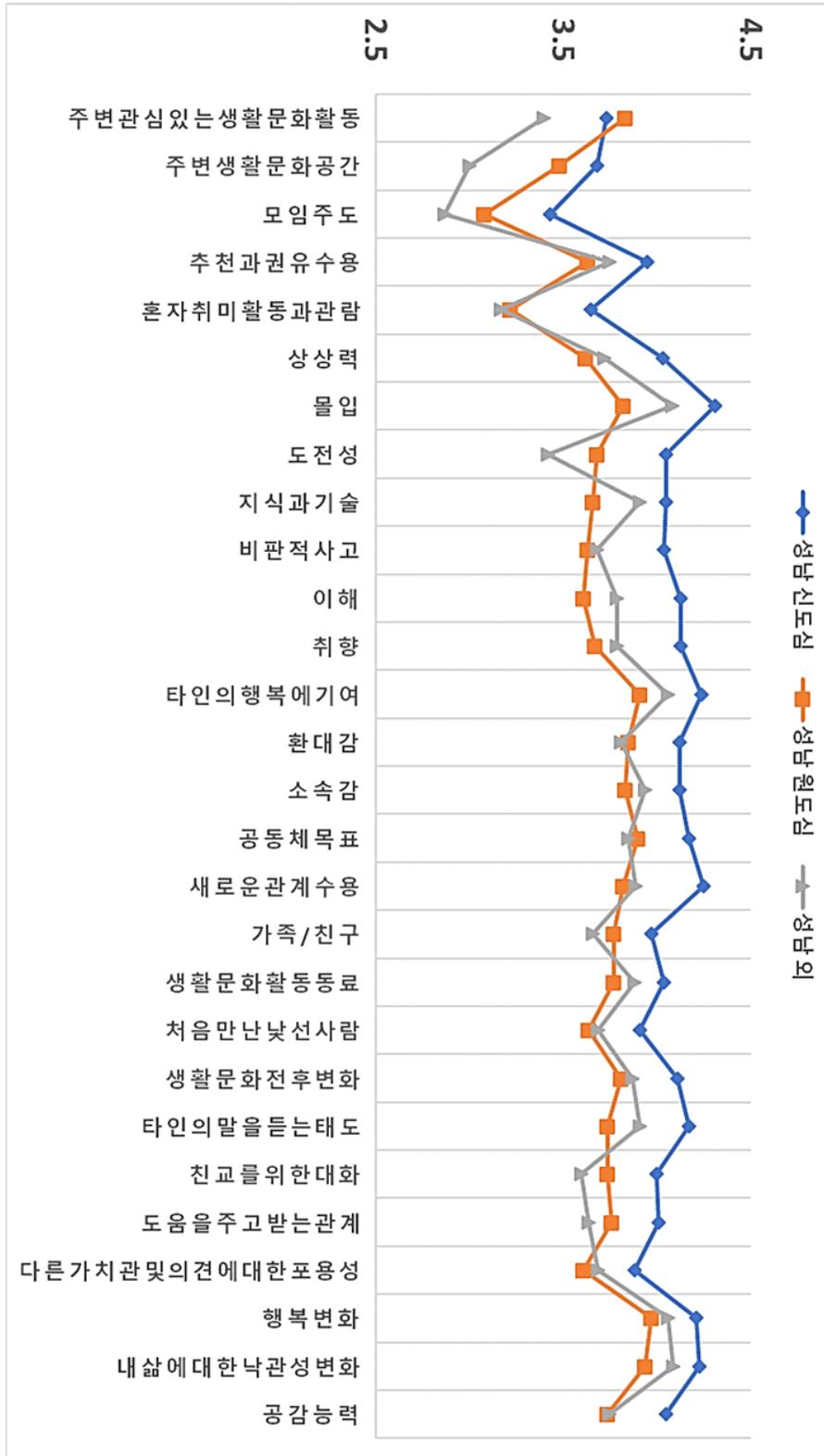
■ 성남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 진입여건 차이

성남 원도심은 주변에 관심 있는 문화활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남 신도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높은 평가를 함. 그러나 집/직장 주변의 생활문화 공간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성남 신도심이 더 높게 평가하여 지역적 차이를 드러냄(유의수준 5%).

[표 30] 지역 효과 비교 - 유의수준 10%

구분	문항	성남 신도심 (분당구/판교)		성남 원도심 (중원/수정구)		성남 외		분산의 동질성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72	3.76	160	3.66	52	3.50	0.395	0.674	0.292
	개인활동시간	72	3.39	160	3.31	53	3.13	0.462	0.631	0.403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74	3.73	159	3.83	53	3.40	0.050	0.952	0.024
	주변생활문화공간	73	3.68	160	3.48	53	3.00	1.643	0.195	0.004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74	3.76	159	3.67	53	3.43	1.448	0.237	0.211
	리더의경청	72	3.82	153	3.82	48	3.73	2.420	0.091	0.784
활동 유형	모임주도	74	3.43	161	3.08	52	2.87	1.080	0.341	0.023
	네트워크와정보확보	71	3.68	161	3.42	52	3.60	2.024	0.134	0.147
	추천과권유수용	76	3.95	162	3.63	53	3.75	6.589	0.002	0.026
	혼자취미활동과관람	75	3.65	161	3.22	52	3.17	0.298	0.742	0.007
창의적 학습	상상력	75	4.03	162	3.62	53	3.72	3.235	0.041	0.002
	몰입	75	4.31	161	3.82	53	4.08	1.169	0.312	0.000
	표현성	76	3.88	162	3.73	53	3.74	6.643	0.002	0.427
	즉흥성	76	3.78	162	3.74	53	3.66	1.291	0.277	0.751
	도전성	74	4.05	162	3.68	53	3.42	3.966	0.020	0.001
	지식과기술	76	4.05	162	3.66	53	3.91	1.644	0.195	0.004
	비판적사고	76	4.04	161	3.63	53	3.68	2.856	0.059	0.003
	이해	76	4.13	161	3.61	53	3.79	2.170	0.116	0.000
	취향	75	4.13	162	3.67	53	3.79	0.153	0.859	0.001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76	4.24	161	3.91	52	4.06	0.348	0.707	0.012
	환대감	76	4.12	162	3.85	53	3.81	1.238	0.291	0.030
	소속감	75	4.12	162	3.83	53	3.94	0.736	0.480	0.039
	공동체목표	76	4.17	162	3.90	52	3.85	1.203	0.302	0.024
	새로운관계수용	76	4.25	159	3.82	53	3.89	0.883	0.415	0.000
갈등 인식 유형	불안	76	3.26	153	3.33	53	4.64	5.007	0.007	0.235
	개인책임	75	3.47	154	3.31	52	3.38	0.059	0.943	0.525
	중재욕구	75	3.79	148	3.57	52	3.54	0.290	0.749	0.186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65	4.03	128	3.81	42	3.83	1.291	0.277	0.122
	가족/친구	76	3.97	162	3.77	53	3.66	0.169	0.845	0.067
	거주지이웃	76	3.89	162	3.75	53	3.58	1.534	0.218	0.103
	생활문화활동동료	76	4.04	161	3.77	52	3.88	0.902	0.407	0.047
	처음만난낯선사람	75	3.91	162	3.64	52	3.69	1.008	0.366	0.073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76	4.01	161	3.81	53	3.94	0.265	0.767	0.202
	생활문화전후변화	76	4.11	162	3.81	53	3.87	0.537	0.585	0.041
	타인의말을듣는태도	76	4.17	161	3.74	53	3.91	2.402	0.092	0.001
	친교를위한대화	76	4.00	161	3.74	53	3.60	1.940	0.146	0.022
도움을주고받는관계	76	4.01	161	3.76	53	3.64	1.580	0.208	0.042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76	3.88	162	3.61	52	3.69	0.368	0.693	0.037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76	3.72	161	3.63	52	3.54	1.448	0.237	0.462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75	4.21	161	3.97	52	4.06	2.157	0.118	0.096
	건강변화	75	4.03	161	3.94	53	3.92	2.224	0.110	0.686
	내삶에대한낙관성변화	75	4.23	161	3.94	53	4.09	0.805	0.448	0.025
	정서조절력	76	3.93	162	3.78	53	3.89	1.673	0.189	0.378
	공감능력	74	4.05	162	3.74	53	3.75	0.126	0.881	0.013
	자기효능감	74	4.04	160	3.81	53	3.92	1.697	0.185	0.119

[그림 5] 지역 효과 비교



6. 군집분석

가. 군집 특성

■ **활동 유형과 갈등인식 유형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시도함.**

활동 유형은 활동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됨. 모임을 주도하는지, 스스로 네트워크와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지, 타인이 권유한 활동을 수용하는지, 혼자서 취미 활동과 관람을 하는지 등을 측정함.

갈등인식 유형은 갈등 상황에 얼마나 초조해하는지(불안), 갈등의 원인을 개인으로 보는지(개인책임), 화해에 대한 중재욕구가 얼마나 되는지(중재욕구) 등을 측정함.

[표 31] 활동 & 갈등인식유형

활동유형				갈등인식유형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모임주도	299	3.16	1.203	불안	294	3.55	5.045
네트워크와정보확보	296	3.53	0.960	개인책임	293	3.38	1.028
추천과권유수용	303	3.74	0.851	중재욕구	287	3.65	0.900
혼자취미활동과관람	300	3.34	1.036				

■ **4개 군집의 특성**

군집분석 결과 수용형, 불안형, 적극적 관여형, 주도형이 도출됨.

주도형은 혼자 하는 활동 외 모든 활동 방식에 매우 적극적인 동시에 갈등에 대한 불안도 높고 갈등 상황에서 개인 책임도 다른 유형보다 크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군집임.

적극관여형은 모임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타인이 권유하는 활동에 참여하길 선호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성을 보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중재하는 군집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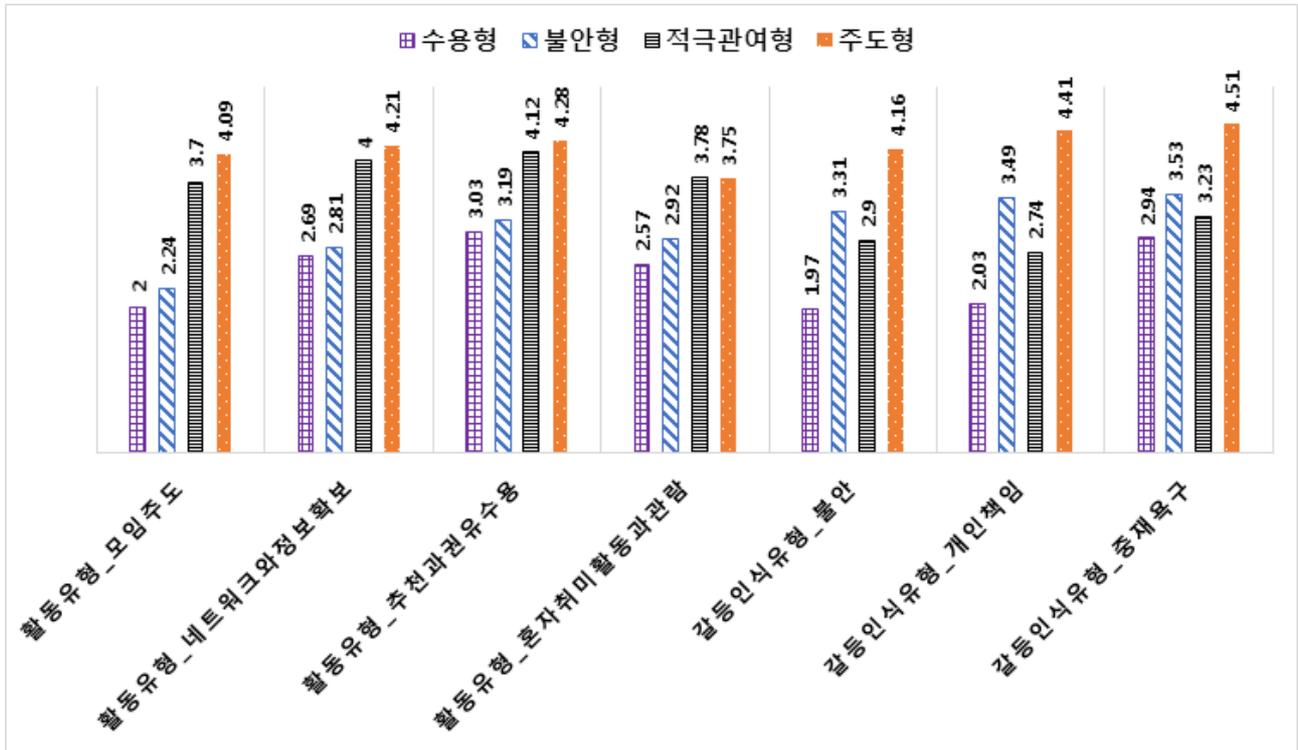
불안형은 활동성은 낮지만 갈등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관계의 중재에도 나서는 편임.

수용형은 타인의 권유를 따라 활동하지만 전반적으로 활동성도 낮고 관계에 개입하려는 의지도 약함.

[표 32] 군집분석 (최종 군집중심)

		군집			
		수용형	불안형	적극관여형	주도형
활동 유형	모임주도	2.00	2.24	3.70	4.09
	네트워크와정보확보	2.69	2.81	4.00	4.21
	추천과권유수용	3.03	3.19	4.12	4.28
	혼자취미활동과관람	2.57	2.92	3.78	3.75
갈등인식 유형	불안	1.97	3.31	2.90	4.16
	개인책임	2.03	3.49	2.74	4.41
	중재욕구	2.94	3.53	3.23	4.51
N		35	91	73	80

[그림 6] 군집분석 - 4개 군집 특성



나. 각 군집에 속한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분포

■ 각 군집에 어떤 특징을 가진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는지 교차분석

성별, 연령, 지역, 사업에 따른 교차분석을 모두 시도해 봄.

이 중 군집별로 성별과 연령의 차이는 미미했음.

반면, 거주지와 사업 참여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10% 유의수준).

특히,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강하게 나타남(1% 유의수준).

■ 군집 - 거주지 교차분석 (10% 유의수준)

성남 신도시 거주자 중엔 적극관여형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주도형이 이었음.

반면, 성남 원도심 거주자 중엔 불안형이 가장 많고 적극관여형이 가장 적음.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커뮤니티의 허리를 이루는 층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방 응답자 중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마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표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관여형은 주도적인 리더십과 사업 수용적인 참여자들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지점으로 보임.

성남 외 거주자 중엔 주도형이 가장 적었는데 이는 성남 중심 사업에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임.

[표 33] 군집별 거주지 교차분석

군집		거주지			전체
		성남신도심 (분당구/판교)	성남원도심 (중원/수정구)	성남 외	
수용형	빈도	5	23	7	35
	군집 중 %	14.3%	65.7%	20.0%	100.0%
	거주지 중 %	7.1%	15.8%	13.7%	13.1%
불안형	빈도	19	54	15	88
	군집 중 %	21.6%	61.4%	17.0%	100.0%
	거주지 중 %	27.1%	37.0%	29.4%	33.0%
적극관여형	빈도	25	28	17	70
	군집 중 %	35.7%	40.0%	24.3%	100.0%
	거주지 중 %	35.7%	19.2%	33.3%	26.2%
주도형	빈도	21	41	12	74
	군집 중 %	28.4%	55.4%	16.2%	100.0%
	거주지 중 %	30.0%	28.1%	23.5%	27.7%
전체	빈도	70	146	51	267
	전체 %	26.2%	54.7%	19.1%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90

■ 군집 - 참여사업 교차분석 (유의수준 5%)

마을 사업 참여자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

마을 응답자는 주도형 < 적극관여형 < 불안형으로 점차 많아져 참여자들이 피라미트 형태를 이루고 있음. 반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응답자는 적극관여형과 주도형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사랑방의 이러한 역피라미트 형태는 표본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인터뷰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동호회 대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특성 때문일 수도 있어 보임.

[표 34] 군집별 마을/사랑방 참여 교차분석

		참여비교_마을/사랑방			전체
		마을	사랑방	둘다 참여	
수용형	빈도	19	11	5	35
	군집 중 %	54.3%	31.4%	14.3%	100.0%
	참여비교_마을/사랑방 중 %	14.0%	8.9%	25.0%	12.5%
불안형	빈도	54	32	5	91
	군집 중 %	59.3%	35.2%	5.5%	100.0%
	참여비교_마을/사랑방 중 %	39.7%	26.0%	25.0%	32.6%
적극관여형	빈도	31	40	2	73
	군집 중 %	42.5%	54.8%	2.7%	100.0%
	참여비교_마을/사랑방 중 %	22.8%	32.5%	10.0%	26.2%
주도형	빈도	32	40	8	80
	군집 중 %	40.0%	50.0%	10.0%	100.0%
	참여비교_마을/사랑방 중 %	23.5%	32.5%	40.0%	28.7%
전체	빈도	136	123	20	279
	전체 %	48.7%	44.1%	7.2%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18 / 선형 대 선형 결합 0.067

■ **군집 - 사업 참여기간 교차분석 (유의수준 1%)**

전반적으로 사업 참여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용, 불안 → 적극관여 → 주도하는 군집 비율이 높아지는 선형적 관계가 보임.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분석한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사업 효과 차이와 일치함.

1년 미만 참여자 중에서는 주도형 다음으로 불안형이 많았는데 흔히 신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의욕이 많거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5년 차 이상에서 주도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10년 차 미만과 이상이 큰 차이를 보임. 10년 차 이상 응답자 중 주도형이 66.7%나 차지하는 이유는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설계 단계부터 결합한 스타트 멤버가 포함되기 때문일 수 있음.

[표 35] 군집별 사업 참여기간 교차분석

		사업 참여기간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수용형	빈도	8	11	7	5	2	33
	군집 중 %	24.2%	33.3%	21.2%	15.2%	6.1%	100.0%
	사업 참여시기 중 %	10.5%	13.4%	13.7%	14.7%	6.7%	12.1%
불안형	빈도	36	31	14	7	2	90
	군집 중 %	40.0%	34.4%	15.6%	7.8%	2.2%	100.0%
	사업 참여시기 중 %	47.4%	37.8%	27.5%	20.6%	6.7%	33.0%
적극관여형	빈도	15	22	18	10	6	71
	군집 중 %	21.1%	31.0%	25.4%	14.1%	8.5%	100.0%
	사업 참여시기 중 %	19.7%	26.8%	35.3%	29.4%	20.0%	26.0%
주도형	빈도	17	18	12	12	20	79
	군집 중 %	21.5%	22.8%	15.2%	15.2%	25.3%	100.0%
	사업 참여시기 중 %	22.4%	22.0%	23.5%	35.3%	66.7%	28.9%
전체	빈도	76	82	51	34	30	273
	전체 %	27.8%	30.0%	18.7%	12.5%	11.0%	100.0%

*Pearson 카이제곱 - 점근유의확률 (양측검정) 0.000 / 선형 대 선형 결합 0.000

다. 군집별 만족도 및 활동 효과 분석

■ **군집별 종합만족도**

군집에 따라 종합만족도는 통계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냄. 종합만족도, 유사사업 참여의사, 사업참여 추천의사 모두 주도형이 가장 높았고 적극관여형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용형과 불안형은 유사한 수준을 보여줌(유의수준 1%).

■ **군집에 따른 활동 유형 및 효과 분석⁶⁾**

측정틀에 따라 작성된 효과 평가 문항 역시 모두 유의미한 군집 차이가 나타남. 종합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주도형이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고 적극관여형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용형과 불안형은 유사한 수준을 보여줌(유의수준 1%).

6) 분산 동질성 검정 유의확률이 0.05 이하인 문항들에 대해 비모수 검정을 추가 수행함.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Welch 0.0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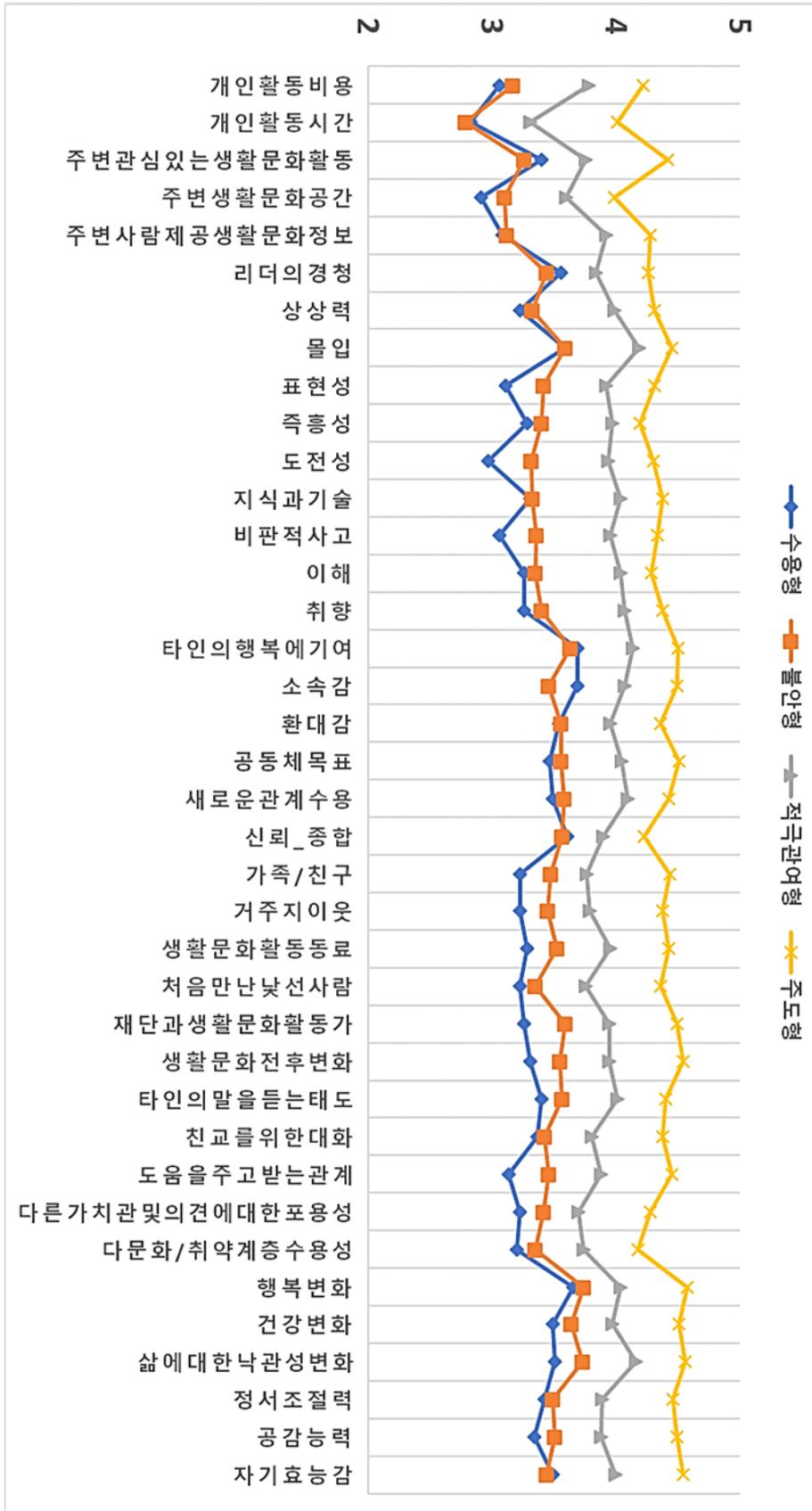
[표 36] 군집에 따른 만족도 - 유의수준 1%

	수용형		불안형		적극관여형		주도형		분산의 동질성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종합만족도	35	3.74	89	3.89	73	4.16	80	4.40	3.460	0.017	0.000
유사사업참여의사	35	3.66	90	3.64	73	4.14	80	4.35	2.019	0.112	0.000
사업참여추천의사	35	3.80	90	3.80	73	4.15	80	4.49	0.571	0.635	0.000

[표 37] 군집별 효과 비교 - 유의수준 1%

구분	문항	수용형		불안형		적극관여형		주도형		분산의 동질성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진입 여건	개인활동비용	34	3.06	89	3.17	72	3.78	79	4.22	3.857	0.010	0.000
	개인활동시간	35	2.83	89	2.79	71	3.31	80	4.01	0.711	0.546	0.000
	주변관심있는생활문화활동	35	3.40	90	3.26	72	3.76	79	4.42	3.006	0.031	0.000
	주변생활문화공간	35	2.91	88	3.10	72	3.60	79	3.99	1.363	0.255	0.000
	주변사람제공생활문화정보	35	3.09	90	3.12	72	3.92	78	4.28	0.695	0.556	0.000
	리더의경청	34	3.56	87	3.44	70	3.84	72	4.26	0.487	0.691	0.000
창의적 학습	상상력	35	3.23	91	3.33	73	3.99	80	4.31	2.270	0.081	0.000
	몰입	34	3.59	91	3.59	73	4.19	80	4.45	3.837	0.010	0.000
	표현성	35	3.11	91	3.42	73	3.92	80	4.31	0.418	0.740	0.000
	즉흥성	35	3.29	91	3.40	73	3.97	80	4.20	0.510	0.676	0.000
	도전성	35	2.97	91	3.32	72	3.94	80	4.30	2.780	0.041	0.000
	지식과기술	35	3.31	91	3.33	73	4.04	80	4.38	2.131	0.097	0.000
	비판적사고	35	3.06	91	3.36	73	3.96	79	4.34	0.655	0.580	0.000
	이해	35	3.26	91	3.35	73	4.04	79	4.29	1.225	0.301	0.000
취향	35	3.26	91	3.40	73	4.07	80	4.38	1.618	0.185	0.000	
공동체 참여	타인의행복에기여	35	3.69	89	3.63	73	4.14	80	4.50	0.983	0.401	0.000
	소속감	35	3.69	91	3.46	73	4.07	80	4.49	1.683	0.171	0.000
	환대감	35	3.54	91	3.56	73	3.96	80	4.36	0.918	0.433	0.000
	공동체목표	34	3.47	91	3.56	73	4.05	79	4.51	4.464	0.004	0.000
	새로운관계수용	35	3.49	89	3.58	72	4.10	80	4.43	3.152	0.025	0.000
신뢰와 소통	신뢰_종합	28	3.61	74	3.57	59	3.90	64	4.23	1.199	0.311	0.000
	가족/친구	35	3.23	91	3.48	73	3.77	80	4.44	2.239	0.084	0.000
	거주지이웃	35	3.23	91	3.45	73	3.79	80	4.38	0.695	0.556	0.000
	생활문화활동동료	35	3.29	91	3.53	71	3.96	80	4.43	3.431	0.018	0.000
	처음만난낯선사람	35	3.23	91	3.35	72	3.76	80	4.36	2.096	0.101	0.000
	재단과생활문화활동가	35	3.26	91	3.59	73	3.95	79	4.49	1.523	0.209	0.000
	생활문화전후변화	35	3.31	91	3.55	73	3.95	80	4.54	3.291	0.021	0.000
	타인의말을듣는태도	35	3.40	90	3.57	73	4.01	80	4.40	2.311	0.077	0.000
	친교를위한대화	35	3.37	90	3.43	73	3.81	80	4.38	1.265	0.287	0.000
도움을주고받는관계	35	3.14	90	3.46	73	3.88	80	4.45	2.827	0.039	0.000	
사회적 관용	다른가치관및의견에대한포용성	35	3.23	91	3.42	73	3.70	80	4.28	2.012	0.113	0.000
	다문화/취약계층수용성	35	3.20	91	3.35	73	3.74	80	4.18	0.742	0.528	0.000
개인의 행복	행복변화	35	3.66	90	3.74	72	4.04	80	4.58	1.392	0.245	0.000
	건강변화	35	3.49	90	3.64	73	3.97	80	4.51	1.380	0.249	0.000
	삶에대한낙관성변화	35	3.51	90	3.73	73	4.16	80	4.56	1.951	0.122	0.000
	정서조절력	35	3.43	91	3.49	73	3.89	80	4.46	1.628	0.183	0.000
	공감능력	35	3.34	91	3.51	73	3.88	80	4.49	1.205	0.308	0.000
	자기효능감	35	3.49	90	3.44	73	4.00	80	4.54	1.520	0.210	0.000

[그림 7] 군집별 효과 비교



2-4. 현안

◎ 2018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문항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수행 본격화로 생활문화활동의 사업적 틀이나 내용 전환에 대한 검토가 여러 문화예술 기관에서 진행됨. 이러한 흐름 위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서도 좀 다른 성격의 지원 방식이 가능할지 수요조사를 진행함.

자발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취향 커뮤니티나 마을 주민의 자치적 측면을 넘어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프로그램, 예술가의 결합 요구,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이에 세 문항 모두 5점 만점에 4.1점이 넘는 높은 수요가 나타남.

[표 38]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수요

항목	N	평균
가족/친구와함께하는여가프로그램	301	4.17
전문가/예술가파견	302	4.20
커뮤니티운영노하우교육프로그램	303	4.12

◎ 자유제안 결과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하도록 요청함. 그 결과, 행정적 간섭 및 규제 철폐/지속적 지원/재단과의 소통이 합하여 8건으로 의외로 프로그램 수요보다는 사업의 구조적 체계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그 뒤를 이어 방치된 공간 활용 및 장소 확충 5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3건 등이 제안됨.

[표 39] 자유제안

자유제안	빈도	자유제안	빈도
전통놀이	1	행정간섭과규제철폐/지속지원	7
방치공간활용/장소확충	5	동단위문화예술프로그램	1
아이들과시간보낼수있는활동	1	제과제빵/바리스타	1
정착이주민을위한활동	1	재단과의소통	2
운동프로그램	2	홍보필요	3
거주민의견종합	1	동별네트워크동향파악	1
택견	1	부담없이참여가능콘텐츠	1
동네곳곳평상설치	1	악기수업다양화	1
소외계층프로그램	1	집밥나눔	1
전체 32 건			

2부.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활동실태 인터뷰

1. 조사과정

1-1. 1차 연구계획

- ◎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 조례 등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의 정의와 범주, 활성화 방안, 평가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지난 10여 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시민 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해왔음. 그러나 연구진은 정책 전문가 및 사업 집행자들에게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노력과 별개로 생활문화를 욕망하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피부에 와 닿는 언어로 사업을 설명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함.
- ◎ 보통 관은 시민들과 의사소통할 때도 정책관련자와 의사소통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목표와 성공적인 사례를 위주로 함. 동호회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해 축적된 자료 역시 한 해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집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그러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관계와 협력하거나 갈등하는 과정, 예술 작업을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중 나침반이 되어주는 공동의 지혜임.
이에, 연구진은 2016년 조사한 생활문화 사례, 지난 몇 년간 생활문화공동체를 인터뷰한 질적 조사 자료에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덧붙여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리더를 위한 실행 매뉴얼을 제작해 보기로 하였음.

1-2. 연구계획의 변경

- ◎ 이와 같은 연구 계획을 9월 22일 착수보고회에서 공유하고 연구 방향이 적절한지 점검하기 위해 착수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이때 연구 계획에 1차로 큰 변동이 생기게 됨. 착수 토론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주제로 관심이 모아졌음.
 - ① 지난 십여 년 간 사업 성과로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동호회들이 생겨나면서 갈등의 양상이 복잡⁷⁾해졌기 때문에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음.
 - ② 지금까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은 동호회와 동호회 간 네트워크에 주목해왔는데, 개별 동호회 내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시민 동호회에 대한 이해를 고도화하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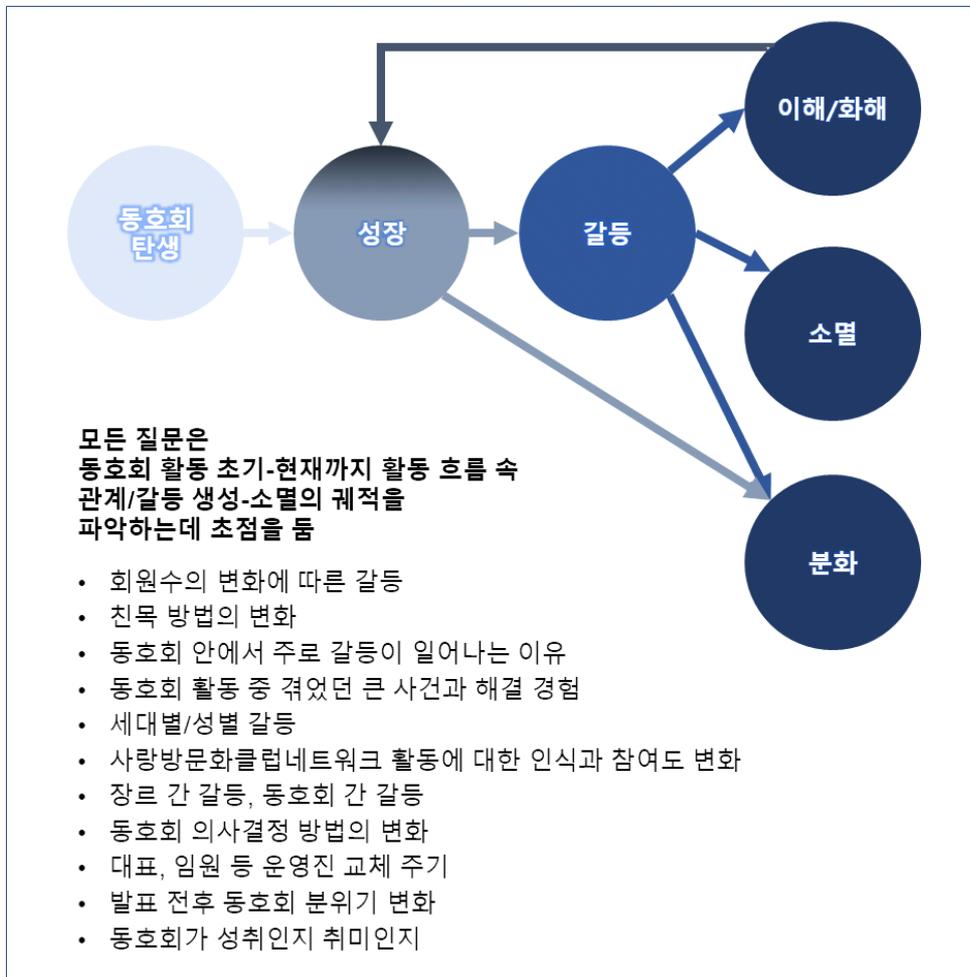
7) 동호회-재단 간 갈등, 동호회-동호회 간 갈등, 장르 간 갈등, 동호회원 간 갈등 등

- ◎ 착수 토론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연구진은 조사 방향을 바꾸게 됨. 성남문화재단이 생활문화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쌓아왔던 내용을 시민을 위한 언어로 번역해보자는 계획은 동호회를 근접 관찰하는 인터뷰 조사로 변경됨. 이때 선배 동호회가 후배 동호회에게 활동의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다루기로 함.

1-3. 인터뷰 아이디어이션

- ◎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동호회 갈등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을 찾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갈등은 단편적이지 않고 연쇄적으로 변화한다는 생각에 이름. 이를테면 동호회 성장에 따라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 갈등의 양상도 변화하게 됨. 이에 동호회 생애주기별로 파악해야 할 질문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참고할 기초질문을 아이디어이션 함.

[그림 8] 동호회 생애주기별 기초질문 아이디어이션



- ◎ 해당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실제 인터뷰는 동호회 연습/전시 등 활동 현장 참여 관찰 중 자연스럽게 진행함.

2. 조사 결과

2-1. 조사 개요

- ◎ 성남문화재단으로부터 사랑방문화클럽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호회 세 곳을 추천 받아 2017년 10월 16일부터 28일 사이에 각 동호회의 연습장소 및 전시회장과 공연장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관찰 조사를 실시함.
- ◎ 동호회 인터뷰 후 해당 내용의 해석을 위해 연구진은 작은 토론을 진행함. 연구진 내 재단 사업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 상황을 좀 더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음.

[표 40] 각 동호회 인터뷰 및 관찰 조사 일정

No.	인터뷰 대상		장르	날짜	장소	상황
1	동호회A	동호회 단장, 지휘자, 회원 다수	음악 (악기)	2017.10.16 10시~18시	성남아트센터 큐브	정기 연습 모임, 연주회 연습 관찰, 휴식시간 중 인터뷰
2	동호회B	지도 강사	미술	2017.10.23 14시~15시	성남아트센터 큐브 전시장	전시회장에서 인터뷰
3	동호회C		음악 (노래)	2017.10.21. 15시~16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공연 리허설 관찰
4	동호회B	동호회 회원 (2명)	미술	2017.10.23. 13시~14시	성남아트센터 큐브 전시장	전시회장에서 인터뷰
5	동호회C	지도강사 및 동호회 회원 (2명)	음악 (노래)	2017.10.23. 18시30분~ 19시30분	서현 문화의 집	정기 연습 모임 시작 전 인터뷰
6	연구진 토론	문화재단 관계자 연구진		2017.10.28	성남문화재단 회의실	

2-2. 인터뷰 요약

- ◎ 각 동호회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 내용을 동호회 특징, 운영 방식, 리더의 특징, 갈등 사건, 신생 동호회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기타 내용으로 나누어 서술함.

3. 동호회 A

가. 동호회 특징:

특정 악기를 20여 년 이상 연주해 온 3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참여 관찰한 당일에도 여러 세대가 섞여 연습 중이었다. 현재 회원 수는 약 25명 정도이다. 복잡하고 빠른 곡들을 앙상블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혼자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주변 회원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점이 회원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았다. 연주할 때는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 보였으며 연습 중간에 지휘자와 단장, 최고참 멤버가 주가 되어 연습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이끌어 가는 느낌이었다.

나. 운영방식:

■ 운영체계

정기 연습은 연중무휴로 매 주 월요일 오전에 두 시간 실시한다. 월요일이 공휴일 및 명절과 겹쳐도 원칙상 쉬지 않는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향상 음악회를 각각 1회씩, 여름에는 음악캠프를 가서 집중 훈련을 하고 있으며 봉사연주도 연 10회 정도 실시한다.

운영단은 정관에 의하면 단장과 부단장, 악장과 부악장, 회계와 감사, 2인 1조 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단장의 경우 2년 이상의 임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성원 대부분이 동호회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 한 명이 장기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는 차세대 리더에 대한 부재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운영비용

회비는 입회비와 월 회비가 있고 연주회 참가비가 있다. 지각과 결석에 대한 벌금이 있어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한다고 한다. 회비는 기본 동호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호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봉사 연주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에 비해 연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 회원 전체에게 명절이 되면 동호회 이름으로 선물세트도 전달하고 있다. 취미 활동이긴 하지만 소소한 보상을 통해 동호회 활동에 애착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 갈등 대처

동호회 활동 중 갈등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개선하려 하고 있으며 매년 총회를 열어 건의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 분반 활동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한 그룹과 봉사 연주 참여처럼 더 적극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그룹들이 파생되어 분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리더의 특징:

단장(동호회 대표)은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동호회 활동 뿐 아니라 기자, 사진 기사, 사회자, 연주자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 정관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셨고 동호회 내부 갈등을 운영 체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매해 정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지점을 파악한다고 한다.

회원들의 동호회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에 적극적이었다. 연주에 대한 보상을 고민할 뿐 아니라 의상 등 소소한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회원들은 처음에 노출이 많거나 화려한 색상의 의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본인의 화려한 드레스를 빌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3~5년에 걸쳐 돋보이는 의상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회원들은 밝은 옷이 더 나은 관객 반응을 이끄는 경험을 통해 연주회 의상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동호회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안에서도 건의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라. 갈등 사건:

연주회에 독주자로 나갈 회원을 뽑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하면 승복하지 못하고 동호회 안에서 불협화음을 내거나, 연습 중 파트별 단위 지적을 했음에도 개인적으로 자신감에 상처를 입어 불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A동호회 사상 가장 큰 갈등은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악기를 전공하는 가족과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수락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동호회 규칙에 따라 협연을 하게 된 가족에게도 연주회 참가비를 요청했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동호회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동호회 활동에 불참 중이라고 한다.

여럿이 함께하는 합주의 완성도를 위해 연습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한 동호회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고 이로 인한 경쟁이나 인정의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4. 동호회 B

가. 동호회 특징:

타국생활을 하며 취미생활을 할 여유가 없던 이들에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탄생한 동호회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온 여성들과 한국인, 장애인 등 섞여있는 동호회이다.

다문화 회원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다면 누구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동호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채화 도구 대여, 도화지 제공 등 그림도구를 모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과 의욕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림 그리는 취미를 만들 수 있고 과거 작품을 보면서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고 한다.

나. 운영방식:

■ 운영체계

초기에는 기관의 다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 왔으나 현재는 전시회 방문이나 기존 회원의 소개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대표 1인이 운영하는 동호회라 볼 수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두 시간 동안 대표 본인과 전문 강사 두 명이 그림 지도를 하고 있다. 전문 강사는 대표가 동호회 수준과 문화를 고려해 고용한 사람들이다.

■ 운영비용

회비가 없다. 타국에서 생활하느라 취미 생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던 이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다문화 관련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계속 운영해 왔다.

■ 친목과 관계 맺기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자신의 작품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대화 나눌 시간이 없지만, 종료 후 점심 식사나 차를 마시며 친목을 도모한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개인 작업에 치중하며 협동 작업은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대표는 꾸준히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회원 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멤버들이 정보를 전달받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전달한다고 한다.

다. 리더의 특징:

대표는 그림을 잘 그리기 보다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그림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다.

다문화 사람들을 관리 통제하려는 관료적 시각에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회원들은 다른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불만, 국적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느낌을 받아 대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라. 갈등 사건

강의 시간에는 자기 작업에 바빠서 회원들 간 특별한 접촉점이 없고 그래서 두드러지는 갈등 역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종종 본인의 그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그림 그리는 활동을 훼방하거나, 동호회 활동 종료 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빈번히 하는 등 분위기를 흐리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지적하고 때로는 탈퇴를 권유한다고 한다.

마. 추가 전화 인터뷰: 사랑방문화클럽에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

■ 재단 직원들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

장기 근속자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부임한 직원들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취지와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고 사업을 관성대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재단의 태도가 지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등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가 있어 보였다.

■ 동원되는 느낌

재단과 협조하며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참여가 아니라 동원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고 한다. 동호회 회원들도 참가자 입장이 아니라 관의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일회성 동원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종종 말했다고 한다.

■ 발언권 부재의 느낌

시민을 위한 행사 및 세미나라고 소개를 받아 시간을 내 참석을 했는데 패널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청중으로 참석한 동호회가 의견을 제안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성남문화재단 퍼레이드 등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은 있지만 그 행사를 계기로 타 동호회와 특별히 친해지는 경우는 없고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정도라고 하였다. 전혀 다른 분야의 동호회와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동호회를 통합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총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동호회 C

가. 동호회 특징:

현재 30대에서 70대의 회원들이 10~15명 정도 모여 활동하고 있지만 인터뷰 당일에는 주말 공연이 끝나고 바로 모인 탓에 60~70대 세 분만 참가하였다. 주로 입문 초급자 중심으로 연습이 진행되었고 상급자들은 별도의 팀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도 강사는 동호회 활동을 재미 중심이라고 강조했고 인터뷰에 응한 동호회 회원들도 C동호회의 음악 장르가 밝고 경쾌해서 즐거운 동시에 부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나. 운영방식:

■ 운영체계

동호회 회장이 있지만 지도 강사가 리더가 되어 이끌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동호회 활동이 지도 강사 1인의 비전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보였다.

■ 운영비용

지도 강사는 C동호회를 동료의식을 지니고 함께할 곳이라 하였고 다만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를 배워야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일정이 생겼을 때 동호회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최소한의 수강료를 스스로 제안해 받고 있다고 한다.

다. 리더의 특징:

현 동호회 외 다른 동호회 지도와 개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생활문화가 생업으로 까지 발전한 것 같다.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 같지만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인터뷰에 응한 회원들은 지도 강사의 교육방식을 지지하면서도 엄격함으로 인해 종종 회원들의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동호회를 이끌어 오면서 겪었던 장소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문화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다.

사람들이 놀이 공간에서 매일 다른 악기를 연습하고 주말에는 지방에서 공연한 후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삶을 즐길 수 있는 삶을 꿈꾼다고 한다.

라. 갈등 사건:

C동호회는 회원이 바뀌었어도 지도 강사는 바뀌지 않고 10여 년 간 쭉 이끌어 온 경우인데 몇 년 전 당시 회장과 지도 강사 사이에 동호회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실질적 리더십이 지도 강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회장이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본인의 생각대로 동호회가 움직이지 않아 나가는 경우가 몇몇 있었다고 한다.

6. 인터뷰 기타 질문에 대한 의견

갈등 원인에는 분야가 다른 타 동호회와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는 세대별, 성별 갈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세 동호회 인터뷰 결과 갈등의 섬세한 부분까지 포착하지는 못하는 듯 했고 주로 한 개인이 동호회의 분위기를 망치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2-3. 재단 관계자 및 연구진 토론 요약

- ◎ 성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사업에 대해 좀 더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하려면 갈등요소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인터뷰 및 관찰 조사 실시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내부의 갈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회원들을 만나보고 동호인들과 사랑방문화클럽, 재단 사이에서의 갈등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목표였음. 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랑방문화네트워크 안에서의 갈등보다는 사업 구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음.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본래 목적은 동호회들이 발표 등의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여러 동호회 및 지역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문화의 공공적 역할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었음.
- ◎ 대의제에 기반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동호회 대표들의 네트워크에 머물고 있으며 생활예술 동호회 정책 사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임.
- ◎ 동호회 대표끼리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동호회원들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도는 훨씬 더 낮은 상태임. 회원들이 축제를 통해 타 동호회 회원과 만나도 과업을 공동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왜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 사업 초창기에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음. 예를 들어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화통화 교육을 들어야 했는데 이때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였음. 문화통화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도 중단됨.
- ◎ 10년이 지나 시스템에 의존해 관성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담당자들도 생활예술 정책 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가 부족한 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김. 지금도 일 년에 몇 차례 신입클럽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점차 취지 중심의 정책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업 설명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였음. 이로 인해 신입클럽들은 네트워크 가입 시 각자의 동호회에 어떤 이득이 될지를 우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게 된 것 같음.
- ◎ 사업에 대한 피로도도 점차적으로 높아진 상황임. 동호회가 많지 않았을 때는 공감대를 형성해 무엇인가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있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동호회의 장르별 요구, 활동 평가에 따른 요구 등이 많아지고 이를 반영하기 급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됨.
- ◎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갈지, 개인 및 동호회가 본인들의 에너지를 지역과 나눔으로써 지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관한 고민이 줄어들고 있음.
- ◎ 시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하는 활동하는 것을 기본적인 모토로 삼았으나 이 부분을 해

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여겨짐. 현재는 사업의 주도권을 재단이 상당히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임. 만일 시민에게 주도권을 온전히 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됨.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됨.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규모 있게 고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의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때문에 기존 사업은 유지하되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다른 판이 열릴 수 있는 일종의 뉴웨이브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함.

3부.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전망을 위한 생각모임

1. 기획의도

1-1. 모임 개요

- ◎ 일 시 : 2017. 11.22(수) / 14:00-16:30
- ◎ 장 소 : 성남문화재단 사무동 뮤즈홀
- ◎ 주 제 : 생활문화의 새로운 흐름
 - 지난 10여 년 간 동호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한계
 - 다가오는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전망
- ◎ 참 석 자 :

발제	김윤진	안무가/ 前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토론	윤수진	마을활동가/ 논골문화 도서관장	논골문화마을
토론	곽윤부	사랑방활동가/ 사랑방문화클럽 기획팀장	서현문화의집 관장
진행/토론	연구TF	박지훈 부장, 이수철 과장 김유진 책임연구, 김아형 공동연구	2017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 ◎ 진행 순서
 - 14:00-14:10 인사,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생각모임 소개
 - 14:10-14:40 서울댄스프로젝트 사례 발제
“인간적 접촉을 디자인하는 사업”
 - 14:40-16:30 토론

1-2. 모임 취지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동호회 활동실태 인터뷰 후, 개별 동호회 및 생활문화 활동 시민 개개인을 근접 거리에서 관찰하는 미시적 접근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업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
- ◎ 기본적으로 동호회 인터뷰에서 출발하여 모임을 기획하였기 때문에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마을 사업, 동호회 네트워크 사업 등 개별적으로 구획된 사업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활문화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음.

[표 41] 생각모임 참석자에게 안내한 모임 취지

2017년 2차 <생각모임> 생활문화의 새로운 흐름
<p>성남문화재단은 지난 몇 년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생활문화 사업을 서비스 관점에서만 다루는 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지표 개발과 현장 조사, 타 지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p> <p>올해는 다년간에 걸쳐 개발하였던 지표를 여러 외부 자문위원께 검토를 받았고, 이와 병행하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참여 동호회의 세부적 속살을 인터뷰하면서 “갈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현장 인터뷰 중 보다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p> <p>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설계되어 십년 이상의 오래된 연혁과 경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피적으로는 안정감 있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동호회 및 재단 직원들은 다른 불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업이 처음 설계되었을 때의 한국과 현재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사업의 취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변혁을 꾀할 수 있는 내부동력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p> <p>이에,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다음 10년을 고민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p>

2. 대화 요약 및 시사점

2-1. 양적 확산 개발 중심 사업 모델의 한계

- ◎ 대화의 큰 뼈대는 70~80년대 선형적 개발 논리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 모델이 과연 2017년 현재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음.⁸⁾ 개발 중심 사업은 시민의 현 상황과 생활세계의 욕망/요구에 발맞추어 사업을 필요한 만큼 꾸리지 못하고,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선언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이상을 향한 몇 개년 차 개발 계획을 추동하면서 시민들을 끌고 가는 형태임.

8)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을 성남시와 성남지역 문화발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1단계 3개년(2006-2008), 2단계 5개년(2009-2013), 3단계 7개년(2014-2020)의 단계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음. 그러나 그 동안 한국사회는 저성장 사회로 들어서면서 개발 중심 발전 패러다임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이 폭발하고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화되고 있음.

개발 중심 사업 모델의 한계는 파편적이지만 늘 제기되어 오던 문제로 전체주의적 문화로 수렴되기 쉬운 사업 방향성, 양적 확산으로 계량되는 성과 평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전 등에 대한 현장의 고통스러운 항의의 형태로 표현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현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팔 길이’ 원칙 등으로 대표되는, 간섭은 하지 말고 지원만 하라는 요구를 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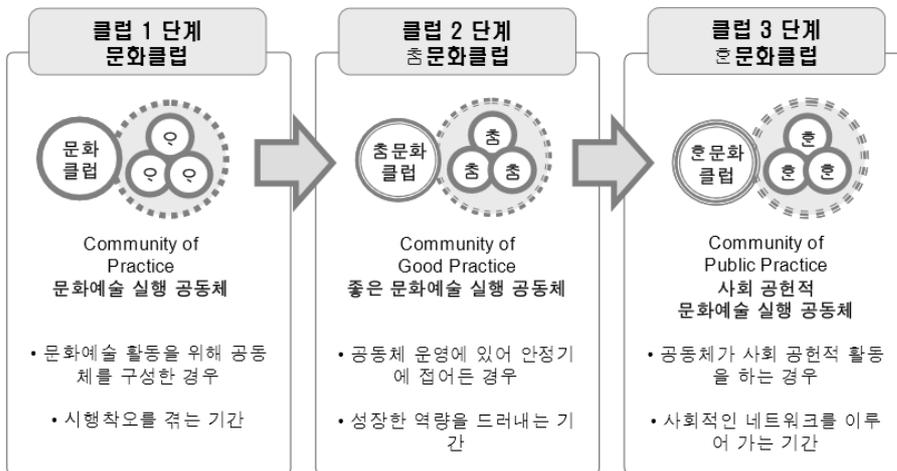
즉, 생각모임을 통해 부상한 주요한 주제들은 성남문화재단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님.

- ◎ 언제나 존재했지만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현장의 요구들은 문화예술계에서 ‘삶의 질적 전환’이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여성문제, 청년문제, 내용적 민주주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형태의 여러 사회적 의제들과 함께 부상하며 응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커뮤니티 댄스 사업, 마을 사업, 동호회 네트워크 사업 등 여러 스펙트럼에 걸쳐 있었던 생각모임 참여자들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타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보였음.
-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십년 동안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의 저력을 가졌지만, 임의의 시민 동호회가 사회공헌적이고 반듯한 동호회 롤모델을 따라 성장⁹⁾해야 한다는 개발 계획 위에서 운영되어 온 만큼 위에서 지적한 문제 대부분을 앎고 있다고 보임.

■ 클럽지기-회원 간 공감대 구축의 어려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클럽지기(동호회 대표)/강사와 클럽 회원 간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몰입과 이해 정도가 크게 차이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사실상 클럽지기들의 네트워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동호회 인터뷰에서도 거듭 확인함.

9) 성남문화재단(2006),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연구』. 57p 그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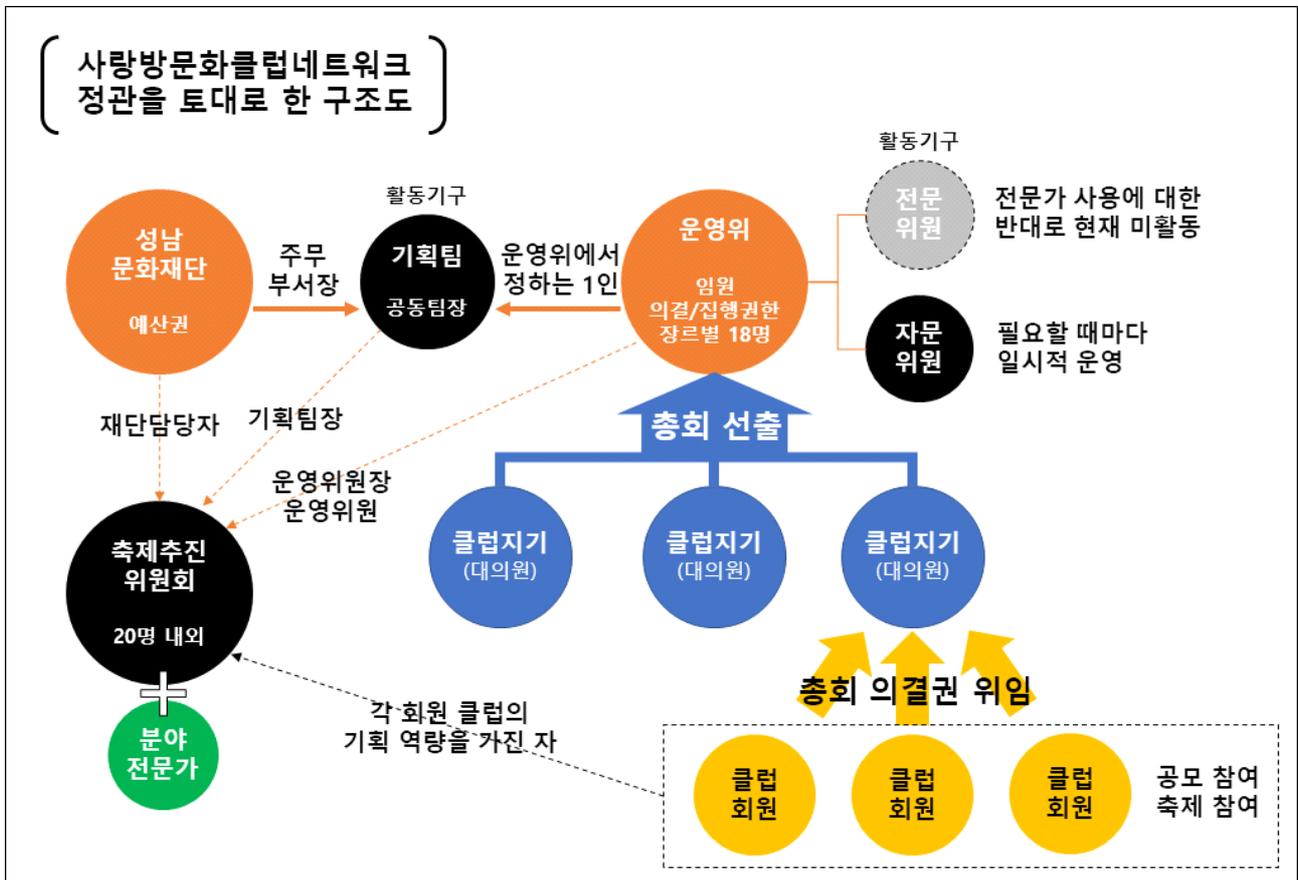


2006년 실태조사를 통해 오래된 연혁의 실력 있는 동호회 일수록 사회공헌적인 성격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호회의 성장 지원 모델이 전략적으로 제시되었음. 교육이나 친목으로 시작해 기예를 추구하다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경로를 가정하고 사업의 기본 구조가 설계되었음.

■ 사업의 관성화, 조직의 관료화 문제

생활문화나 삶의 질 이슈가 사회적으로 본격화되기 전 사랑방 사업을 론칭하였고 론칭 당시 혁신적인 아젠다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성남을 문화도시로 가꾸어 후세대에 물려주려는 낙관적 열망에 차 있었음. 그러나 오랜 세월 여러 사회적 장애물과 씨름하면서 지친 것으로 보임. 사업 초창기였던 2000년대 중반엔 사랑방 사업과 마을 사업을 함께 진행했는데 시의회 문제 때문에 분리되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와 재단 사이를 원활유처럼 이어주던 전문 위원 역할 역시 예산을 할당하면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없어졌다고 함. 공무원의 순환 보직 문제로 시민역량은 올라가는데 새로운 재단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문제는 동호회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가능한 모든 방식을 십여년 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층층이 수직적으로 디자인된 사업의 구조적 측면이 중요한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아래 그림 참고).¹⁰⁾

[그림 9]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조도



10)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정관 제6장 활동기구

『 제20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기획팀을 둘 수 있다.
2. 기획팀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획팀장 1인과 성남문화재단 주무부서장이 공동 팀장을 맡고, 사업에 따른 기획위원을 위촉한다.
3. 기획팀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업을 위해 활동한다.

제21조(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축제추진위원회) 사랑방문화클럽축제를 주관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팀장과 운영위원 및 각 회원클럽의 기획역량을 가진자와 재단담당자, 분야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양적 확산이 만든 문제

리더그룹의 소진, 사업의 관성화, 조직의 관료화는 적절한 운영 조직의 확장이나 변화 없이 동호회 규모가 양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팽창한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36개로 시작해서 2~3년 차 넘어 오면서 80~100개로 확장되었고 현재는 가입 동호회가 230여 개,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활동 중인 동호회가 150여 개 됨. 뿐만 아니라, 한 개 클럽이 몇 십 명 이르는 동호회가 꽤 있고, 몇 백 명인 거대 동호회도 존재함. 동호회 숫자는 증가했는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정관 내용은 제정 이후 사실상 거의 변경된 적이 없음. 양적 확산의 추구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참여 클럽 숫자가 성남시에서 관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일 가능성도 있으며, 질적 성장의 동반 없이 양적 성장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임.

■ 변화의 모색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동호회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도 생겨났으나, 재단-민간 사이에 축적된 갈등을 조율하고 사업을 갱신할 수 있는 내부동력의 생성이 필요해 보였음. 몇 년 전부터 내부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재단-운영위원회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려는 방향성을 보여 왔으며 2017년엔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함. 조직 형식상으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독립적임. 그러나 전문위원이 없어지고 기획 규모가 커지면서 동호회들의 재단의 행정 및 기획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관성화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동호회를 기획부터 행정까지 모두 운영하는 직접적 형태로 지원하였다고 함.

2-2. 지속가능한 사업의 재개념화와 공공성의 문제

- ◎ 여러 정책 토론회 현장에서 양적 확산과 관련해 정책 관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느껴짐. 양적 확산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하며, 사업의 생로 병사, 참여자의 변화 등을 고려해 건강하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비판은 많지만 이를 관료의 체계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지 묘연한 부분이 있음. '생태계'라는 말이 이미 생성된 관계를 현상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체화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는 관념적이고 총체적인 용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공적 자금을 투입한 사업은 세금을 투입한 만큼 공공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이로운 결과물을 남겨야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가 없으면(또는 사라지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진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됨. 이러한 평가기준은 실체를 확정하기 어려운 '아무나'가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두게 만들. 그러나 문화는 숫자로 셀 수 있는 머릿수, 물리적 공간 등의 하드웨어 위에 세워지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인간 삶의 방향성이나 시간적 서사, 관계적 속성 등 비물질적 가치를 다루

는 영역임.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의미적 측면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임. 한 번 만들어 성공한 사례가 영원히 지속해야 하는지, 무조건 복제/확산되는 일이 과연 어떤 개인이 문화 사업에 참여해 감동을 받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스스로 이어나가는 일보다 중요한 성과인지 질문하게 됨. 이러한 비가시적 성과를 어떻게 기술하고 계량할 것인지, 개발의 틀을 내면화한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 등이 모호하여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치고 대응방안을 찾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일 것임.

- ◎ 생각모임에서는 이러한 논지의 주장이 “씨앗 뿌려도 안 되면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으로 표현되었음. 사업의 의미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체계, 추진방안, 예산집행 등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사람들이 강렬한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사건’으로서의 경험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생각모임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대표적 예로 “경계를 넘는 감각”이 언급됨.

■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사례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춤판은 커뮤니티가 자신이 밟고 살아가는 서울땅 여기저기를 밟으며 창공이 펼쳐진 공개된 장소에서 춤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김윤진 감독은 이를 경계 바깥으로 나가는 가슴 뛰는 경험이라고 함.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발표회와 궁극적으로 다른 지점은 관객을 찾아 완성된 공연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춤을 통해 탐색하고 표현의 해방을 추구한다는데 있음. 커뮤니티는 이러한 탐색과 표현을 위한 임시적 그릇이며 춤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몸짓과 태도를 잠시 벗고 개인 삶의 충족감에 집중하는 경험으로 설정됨. 때문에 이 모든 경험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리더로서의 예술가 역량 향상을 중요하게 여김.

■ 논골문화마을의 사례

논골문화마을은 건물 안에서 진행하던 베틀시장을 인도에서 개최하는 안으로 주민투표를 붙임. 32단체 50여명이 모여 장장 6시간에 걸쳐 숙의를 진행 후, 과반을 조금 넘는 28표 찬성으로 베틀시장 이전이 결정되었음. 반대한 주민들은 소소하게 우리끼리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었고 찬성 쪽은 베틀시장을 더 많은 주민들과 즐기는 계기로 만들자는 주장이었다고 함. 반대했던 주민 중에는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응대한다고 함. 관성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계 넘기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대화가 오갔음.

- ◎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세금을 왜 써야하는지 논란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시민/주민 세금을 관료가 쥐고 분배/관리/감시하는 통제적 위치를 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권자가 낸 세금을 주권자에게 가치 있게 되돌려주는 매개로서의 위치성을 인지할 필요가 지적됨.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모은 공적 자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시민정신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는 공동체의 자치적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공유할까의 문제임.

2-3. 싹틔줄처럼 이어지는 관계

- 공동체 자치 문화는 행위 및 결정 단위체와 참여자들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재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임. 생활문화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관 주도 지원 사업은 주민이 문화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공공에 공개하는 과정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업 관리로는 시민/주민 간 관계의 질적 측면을 놓치게 됨. 다양한 문화/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공동 활동을 할 때는 하나의 집중적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때보다 의사소통 비용이 더 들게 되는데 행정은 오히려 이 비용을 비가시화하는 경향이 있음. 정책적인 커뮤니티 사업의 본질이 사회구성원들의 공존과 통합에 있다면 지원을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각모임에서는 이와 관련해 “품과 정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심사하는 관계가 아닌 대화의 형식으로 관계의 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 사업 구조적으로는 여러 채널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생각모임에서는 이를 “싹틔줄”처럼 연결된 관계라고 표현함.

■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사례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그룹 간의 만남의 밀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함. 사업 기간 내내 수차례에 걸친, 작고 큰 워크숍 및 회고 모임의 운영을 통해 춤 공동체 안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였음. 이 과정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예술가가 처음 커뮤니티 작업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없이 시작했음지라도 시민의 춤추고자 하는 열정을 만나면서 경직되어 있던 자신의 춤 세계를 되돌아보고 예술적 열망이 생겨나는 경험을 했다는 점임. 즉, 정책의 대상인 시민의 변화를 일방적으로 사업 성과로 삼는 관점을 넘어서 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는 주최자, 강사로 파견된 예술가, 참여 시민들이 상호 변화하는 학습의 과정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과정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독의 의도에 따라 처음부터 뚜렷한 지향점으로 설정되었음. 이때 갈등이 무조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접근법을 취하기보다는 갈등을 겪고 함께, 또는 각자 해결하는 연습 과정으로 사업을 바라봄.

■ 논골문화마을의 사례

논골문화마을은 회의로 유명하다고 함. 수다모임이 많고 정규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함. 실제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 20명이 하지만 위원회만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발언권을 갖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함.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움. 마을 정관에 선출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1년 이상 빠짐 없이 회의에 참석한 주민만 위원 자격을 얻는다 함. 일단 위원이 된 이후에도 3회 이상 빠지면 자동으로 탈락한다고 함.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사례

지난 10년 간 아는 사람들끼리 5~6팀 모아 공모 지원하면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관계가 형식화되는 문제를 탈피하고자 올해부터 방식을 바꿈. 장르별 15~17개 팀을 모이게 하여 소외되는 팀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해나갈지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을 통해 동호회 대표 뿐 아니라 회원들까지 다른 동호회의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변화가 생겼다고 함.

-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마을 사업은 개별 사업 내에서 뿐 아니라 클럽과 마을 사이의 연계 역시 고민해 온 역사가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를 일군다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

■ 논골문화마을의 사례

사랑방문화클럽 기타 동호회의 영향으로 세 개의 마을 동호회가 생겨남.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프로그램에 기타 동호회가 참여 중. 마을 동호회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을 내에서 논쟁이 일어난 적 있음. 마을 안에도 공간이 두루 있어 교육과 발표 등 활동이 가능한데 재단 차원의 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했을 때 마을 범위를 넘어 활동하는 부담 뿐 아니라 동원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함. 네트워크 가입하면 재단 공간을 이용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동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논의는 한 달 간 이어졌다고 함. 그 결국 처음 생겨난 동호회가 네트워크에 가입 함. 마을 내에서 함께 해 온 동호회가 12개 정도 되는데 이들이 성장하는 와중 문화마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함.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사례

초창기에는 장르별로 움직이지 않고 동 단위, 마을 단위로 묶어 진행을 해봤음. 그러나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끌고 책임지는 주체가 많지 않다는 현실적 벽에 부딪혔다고 함.

- 생각모임에서는 동호회 회원들 간, 동호회 간, 마을 주민과 동호회 간 등의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역 리더 양성 문제가 제기됨.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전문가 네 분을 초청해 주요한 모임 때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는데 모두 성남 외부에서 초청됨. 이분들이 사랑방문화클럽의 생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있었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초창기엔 클럽지기과 리더들이 주로 강사 중심이었으나 10년 동안 공연 쪽에선 일반 회원이 대표가 된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성장하는 인력을 매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

2-4. 자발성의 재개념화

- ◎ 기존 리더십의 소진이나 새로운 지역 리더 양성은 자발성 개념의 정책적 사용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만들고 있음. 관료의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 예산 사용의 공정성을 내세워 자율적인 현장 중심의 판단과 활동을 가로막는 행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모아 동기부여하고 놀이판을 기획하고 관계를 보살피는 등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기 어려움. 때문에 생업이 있음에도 일부 앞장서 활동하는 적극적 참여자 및 사업 담당자들이 이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형국임. 대표적으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행정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 정산 업무를 위한 재정 지원이 없음.
- ◎ 문화적 열정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의 헌신을 ‘자발성’이라는 말로 지칭하며 시민의 롤모델로 제시하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회피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뿐만 아니라 리더 그룹에서 소외되지 못하는 노동량은 일반 회원들에게까지 낙수되어 참여의 장애물이 됨. 예를 들어, 논골문화마을에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에 가입하기 꺼려했던 ‘동원’에 대한 의심이 대표적임.
- ◎ 재단과 시민/주민 리더 그룹 사이의 갈등도 주로 이 업무 부하를 둘러싸고 일어남. 사업이 성공적으로 오래 지속된 경우엔 묵은 상처와 갈등이 두꺼운 벽이 되어 불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경우도 이 불신을 완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음.
- ◎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이런 종류의 업무 부하에 대해 생각모임에서는 “자발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자발성을 착취하는 것은 다르다.”는 표현이 등장함. 또한,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는 발표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 자발성이란 사회적 공헌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싶을 때 몰입/헌신하고, 무리일 때 그만두며,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는 내적/외적 문화 역량의 문제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사례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시민의 자발성을 보존하기 위해 기획감독의 의지 아래 몇 가지 운영 원칙대로 움직였음.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안 할 자유,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시민 동원 행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기획감독이 커뮤니티를 대표해 응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협의를 따르기 등.

지원금으로 엮인 관-민 사이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가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는 미묘한 방식으로 압력이 행사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운영의 묘를 발휘해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대화가 오감.

2-5. 사람을 남기는 행정

- ◎ 2-1부터 2-4까지 생각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응축하면 사업의 질적 변환에 대한 고민이라 볼 수 있음. 특히, 인문/문화/예술적 관점으로 질적 변환을 실제화하는데 있어 1) 민-관, 민-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사소통 관리와 2) 시민/주민 자율성을 존중하는 예산 편성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논골문화마을의 사례

커뮤니티의 자율성은 사람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 참여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에서 ‘사람 남기기’를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음.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프로그램 강사비, 인건비 등 노동의 품값으로 사용했고 상근 인력도 두 사람 사용함.

많은 커뮤니티 사업이 주로 ‘밥 먹는 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 항목에 밥값이 없다는 점을 불편해하는데, 논골문화마을은 함께 밥을 먹되 밥값은 자발적으로 나누고 예산은 품을 더 들여 수고하는 이에게 사용한 점이 특기할 만함.

■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사례

재단과 예술가의 관계, 참여 시민과 예술가의 관계, 참여시민과 재단과의 관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서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여 서로가 도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였음. 지급 비용이 많지 않더라도 스태프들이 들인 시간과 정성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음.

- ◎ 논골문화마을의 방식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느껴지며 좀 더 깊이 탐구될 필요가 있어 보임.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밥’의 중요성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론칭된 당시에도 강조되었고 성남문화재단에서 발행한 『2016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에서 다룬 여러 생활문화 사례에서도 잘 드러남. “‘함께 먹는 행위’는 거의 모든 유형의 공동체에서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일종의 기반 활동으로 이해”¹¹⁾될 수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화적 기본권에 속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적 삶을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상급식이 복지 이슈로 폭발한 맥락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 무상급식이 부상한 이후,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현재 기본소득, 예술인복지 등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보장에 관한 내용까지 이르게 됨.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밥 먹기를 넘어,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조건의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문화 사업에서 밥이 준비되는 현장은 대체로 최소한 밥은 굶기지 않는다는 전통적 보살핌의 역할을 요구받음. 논골문화마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살핌 노동을 나누는 동시에 주로 보살피는 자들이 자신을 연료 삼아 커뮤니티를 불 피우지 않도록 예산 배분을 조정한 사례임. 즉, 커뮤니티 지킴이를 남기는 일을 통해 커뮤니티를 지속하려는 사례로 이해됨.

11) 성남문화재단(2016), 『2016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86p

4부.
결론 및 제언

1. 통계분석 주요 시사점

1-1. 측정틀 안정화 작업의 중요성

-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에 삶의 질 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통계전문 외부자문을 거쳐 측정틀을 안정화하려는 시도를 함.
- ◎ 실제로 2016년에 비해 2017년 분석 작업 과정에서 생활문화공동체 현황을 좀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음.
- ◎ 자문에 따르면 향후 2~3년 간 구체적 현장에서 조사검증을 거쳐 측정틀 안정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성남문화재단 사업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양상 및 사업효과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1-2. 생활문화 활동 진입과 장기적 참여의 효과

- ◎ 본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를 포함해 생활문화 과정에서의 학습 효과, 공동체 참여의 효과, 개인적 삶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임.
- ◎ 뿐만 아니라 진입여건도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더 좋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고 정보를 나누고 신뢰를 쌓는 동안 다양한 생활문화 기회가 생성되면서 여러 공간, 프로그램에 접촉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진입여건 중 주변 생활문화 공간과 개인 활동시간은 다른 진입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사업 참여기간으로 보면 1년 차 미만 개인 활동시간이 평균 2.9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도 3.3 정도에 불과함. 이는 측정틀의 모든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다른 문항은 모두 3.5를 넘어감(표 18 참조).
- ◎ 시간의 문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인 중장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최근 유연화 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시간의 적절한 배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이나 파견고용자, 육아나 집안일을 우선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전업주부에게도 현실적인 제약 조건임.
근 십여 년 간 생활문화의 정책적 목표는 자발적 활동에 근거한 시민 정신과 문화예술 소양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자발성에 대한 무리한 강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지 의문이 생김. 생활문화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간 부족 또는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렵게 분산된 생활환경을 배려하여 참여 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행복감이나 건강, 정서적 안정 등 개인의 행복 측면에서 보면 진압여건이나 활동과정에서 만큼 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 5년 차 미만에서는 거의 점수 차이가 없으며 5년 이상 → 10년 이상으로 가면서 점수가 상승함. 즉, 사실상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 장기적 참여가 미치는 영향은 군집분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사업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용형, 불안형이 많고 길수록 적극적 관여형, 주도형이 많음. 불안형은 타인의 권유를 따라 활동하는 편이면서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만 중재 욕구가 있음. 좀 더 길게 참여한 응답자가 많이 포함된 적극관여형은 활발한 활동성을 보이면서 불안이 낮은 안정성을 보여줌. 주도형은 함께 하는 활동과 권유하는 활동에 모두 능동적이면서 갈등에 대한 불안감도 높는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적극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 즉, 사업 참여기간이 길수록 주도적이면서 주체적인 특징을 보여줌(그림 7 참조).

1-3. 지역/연령 간 차이의 문제

- ◎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15년 이상 거주자가 47.4%에 이르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활발한 활동 양상이 마을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음.
-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서 연령, 지역은 참여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임. 신도심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 강세이면서 참여 연령도 높은 편이고 원도심은 30-40대가 주축을 이루면서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²⁾ 사업의 내용적 차이와 더불어 이러한 참여자 연령 및 거주환경 차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명백한 효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 연령 및 지역에 따른 참여사업 차이는 매년 성과평가 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애초 성남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신도심-원도심 간 통합을 꾀하려 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두 사업 간의 연결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가장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지난 몇 년 간 성과평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올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얻음. 다년간의 질적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석을 시도하자면 노인의 사회적

12) 성남 신도심 응답자 중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참여자가 67.1%, 원도심 응답자 중엔 마을 사업 참여자가 65.4%임.

고립 문제에 생활문화공동체가 효과적인 처방책으로 기능한다 보임.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20-50대까지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 더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지 질문하게 됨. 생애주기나 계층에 따른 주요한 생활 의제, 연령대별/성별 활동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다양화해야 사업이 보편적 설득력을 갖추고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재단 고유의 정책적 판단 영역임. 몇몇 개의 사업 수행 이상의 규모 즉, 성남‘시’ 단위의 보편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자원, 정치력이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사업이 유지될 경우는 좀 더 시니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특성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원도심 거주자 중 안정적인 중간 활동 그룹의 취약함이 있음. 군집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도심에는 불안형이 가장 많고 적극관여형이 가장 적음. 적극관여형은 주도적인 리더십과 사업 수용적인 참여자들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활동 양상이 리더/수용자로 다소 양극화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표 33 참조).

1-4. 리더십과 커뮤니티의 조직적 구조

- ◎ 군집분석은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리더의 특성 및 커뮤니티의 조직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의도로 수행함. 각 군집의 특성은 위 1-2에서 언급한 대로이며 주도형 → 적극관여형 → 수용형, 불안형 순으로 종합만족도, 유사사업 참여의사, 사업참여 추천의사, 효과 평가에서 모두 유의수준 1% 내의 차이를 보임. 즉 오래 참여했을수록, 관계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주도할수록 높은 사업평가를 한 것인데 이는 참여형 사업의 주요한 변수가 시민/주민이 직접 투입하는 시간과 정성에 있음을 말해줌.

그러나 생각모임에서도 논의된 바, 시민/주민의 자발성을 자원화하여 사업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공동체 사업은 개인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을 공공적 목적에 근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은 개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구조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 군집의 분포 상태를 보았을 때 마을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은 커뮤니티의 구조적 형태가 다른 것으로 추정됨. 마을은 주도형 → 적극관여형 → 수용형, 불안형으로 갈수록 참여자 숫자가 많은 피라미트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사랑방은 주도형, 적극관여형이 더 많아 역피라미트 형태에 가까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놓고 인터뷰와 생각모임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 동호회 대표들의 네트워크라고 말한 점이 눈에 띄. 정관에 따라 동호회 대표는 개별 동호회의 의견을 대표할 제도적 권리도 획득하고 있으며 축제 운영 역시 대표들 중 선발된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구조임.

- ◎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이 10~15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남성 리더 그룹의 영향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임. 여러 질적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나 대의제 등 조직 구

조에 집중하는 사업 방식을 떠나 의미 있는 문화예술 경험이라는 생활문화활동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를 느낌. 또한 연령/성별 등 다양한 계층으로 권력을 분산할 방안 모색과 앞으로 네트워크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리더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혁신 방안

- ◎ 재단은 2006년 제시되었던 시민 동호회 발전모델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음. 당시 실태조사를 통해 오래된 연혁의 실력 있는 동호회 일수록 사회공헌적인 성격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호회의 성장 지원 모델이 전략적으로 제시되었음. 이때 교육이나 친목으로 시작해 기예를 추구하다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경로를 가정하고 사업의 기본 구조가 설계됨.
- ◎ 그러나 참여 동호회를 인터뷰한 결과, 사업이 처음 설계될 당시와 현재 한국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 상태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변혁을 꾀할 수 있는 내부동력이 고갈된 상태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겨났음.
- ◎ 이에 향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장기적 전망을 재검토해보기 위한 생각모임을 실시했고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이슈와 전략적 방향성이 논의됨. 결론 및 제언에서는 그중 가장 굵직한 다섯 가지 문제만 요약해 제시함.

■ 다양한 대화모임의 개최 (실핏줄의 연결)

전반적으로 좀 더 다양한 계층, 일반 동호회 회원의 연로를 열어주는 일이 필요해 보임. 그동안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분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앎. 2017년 조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지역, 장르 등 관행적인 방식의 범주화 외에 성별, 연령에 따른 현재적/체감적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활동 그룹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신의 이야기에 맞는 방식의 시민/주민 문화예술 작업 및 연구 소모임은 실질적인 활동과 성장, 나눔의 그릇이 되어줄 수 있음.

또한, 고생하면서 사업을 오래 키워온 세월 속에서 재단과 동호회 리더 사이의 묵은 갈등을 풀고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임. 행정적 변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하겠으나 불신을 완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터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우선 절실히 보였음.

■ 민-관 협치 행정과 공동체 활동내용의 변화 모색

재단-동호회 사이 갈등은 주로 축제 운영, 사업예산의 집행 등 행정적 업무처리 부담과 거대한 발표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킹된 활동내용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보였음. 행정의 경우, 주민/시민 활동과 행정이 협치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유연한 행정 활용과 민-관 상호 이해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초기의 취지가 차츰 잊히고 사업이

관성화 되는 과정에서 사업담당자가 새로 오는 등 공통 맥락을 상실하는 문제를 겪어 온 것으로 보임. 생각모임에서 이러한 행정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긍정적인 대안까지 모색되지는 못했음. 향후 구체적인 행정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 재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활동내용 측면은 비교적 생각모임 참여자들 사이 쉽게 의견이 일치함. 문화예술 동호회의 발표회는 일종의 의례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긴 하지만 발표회 개최가 사업의 본질은 아니므로 발표 형식부터 개최 유무까지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기획감독, 전문위원, 예술가의 역할

발표 형식 문제는 “경계를 넘는 감각” 경험에 대한 것으로 기획력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인터뷰에서도 콜라보 공연에 예술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각 확장은 자발적인 활동만으로는 어려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민 창작을 동호회 활동과 연계하는 방향을 모색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양한 예술 장르 및 예술가의 활용 방안이 걸림돌이 되었던 지점 중 하나가 시민/주민 활동에 준비되지 않은 예술가 문제였음. 한국 순수 예술 교육체계 속에서 엘리트로 양성되어 왔거나, 사회변혁 운동의 집단적 추동 속에서 예술을 도구화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예술가 본인이 시민/주민과의 접촉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가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사례를 보면 시민과 예술가의 접촉은 잘 기획되기만 하면 상호 학습이 일어나는 긍정적인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음.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초창기 존재했던 전문위원의 역할이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예술가 역할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음. 재단-주민/시민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면서 기획 의도를 통찰하고 구현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전문성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합당한 권한과 예산을 배당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에 대한 요구

매개 전문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지역 인력양성 문제로까지 이어짐.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은 성남 외부 지역 전문가를 매개자로 불러 공연, 전시 코디네이팅 등을 통해 기획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사랑방문화클럽 생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외부 전문가의 코디네이팅이 얼마나 실질적일지 의문이 제기됨. 사업이 오래된 만큼 네트워크 내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역 인력으로 양성하고 매개 역할을 주자는 의견이 나옴. 생활문화활동이 지역 기반의 자생적 활동으로 위치 매김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논의 지점임.

다만 예술강사 사업에 비추어봤을 때 생활문화가 생업이 될 때 발생할 위험을 처음부터 인식하면서 양성과정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일이 필요해 보임. 직업적 전문성과 책임을 보상과 제대로 연계하는 방향부터 자격증-비정기적 일감이 서로 얽힌 형태로 구조화된 양성 사업 체계에서 탈주하기 위한 시민/주민 중심 커리큘럼 개발까지 다루어야 할 주제의 스펙트럼이 넓음.

■ 동호회-마을 간 연계 방안

생각모임에서 제시된 논골의 마을 동호회 사례가 중요해 보임. 마을 내에서 탄생한 동호회가 반드시 성남시 전체 차원으로 나와 활동해야 할 이유나 욕구가 없을 수 있음. 즉, 동호회 활동에도 그 규모나 목적, 모임 빈도, 활동 장소에 따라 여러 차원의 욕구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다양화된 욕구를 현재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 구조 안에는 담기가 어려움. 이와 관련해 마을 동호회, 오디션 동호회 등 멤버십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함.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 집행 방식의 변화 모색도 필요할 것임.

부록.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설문조사지

ID			
----	--	--	--

안녕하세요?

(재)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등 시민의 문화공동체 활동에 토대를 둔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생활문화 사업이 참여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보려는데 있습니다. **귀하가 생활문화 활동을 하며 겪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집계되어** 사용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2조 2항)
예)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놀이, 마을활동, 취미동호회, 지역축제 등

응답자 인적 사항 (필수 응답 항목)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현거주지	① 성남시 신도심(분당구, 판교) ② 성남시 원도심(중원구, 수정구) ③ 성남 외(서울, 용인 등)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5년 미만 ③ 5년~10년 미만 ④ 10년~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생활문화 사업참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에서 진행 중인 생활문화 사업에는 언제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셨나요? (※ 마을 커뮤니티 활동, 사랑방문화클럽 활동 시작 시기)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사업별 참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가 참여했던 생활문화 사업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마을 커뮤니티 활동 ②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및 네트워크 활동 ③ 둘 다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다. ▶▶ 설문을 종료해 주세요. ● 마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나요? ① 한 달에 1회 미만 참여한다. ② 한 달에 1~3회 정도 참여한다. ③ 주 1회 이상 참여한다. ●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및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나요? ① 한 달에 1회 미만 참여한다. ② 한 달에 1~3회 정도 참여한다. ③ 주 1회 이상 참여한다. ● 사업에 참여했으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당되는 분만 답변해 주세요.) ▶▶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그만 둔 경우, 그 이유는? (_____) ▶▶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및 네트워크 활동을 그만 둔 경우, 그 이유는? (_____) 		

■ 다음은 생활문화 환경 및 활동 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 주변의 생활문화 환경과 개인 활동 여건은 어떤가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1. 주변에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꾸준히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집/직장 주변에 호기심을 끌거나 관심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 축제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모임 공간, 연습실, 작업실 등 생활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집/직장 주변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무리 없이 활동 시간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필요에 따라 개인 비용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즐겼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2. 귀하의 생활문화 활동 방식은 어떤가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2-1. 사람들을 모아야 할 때 내가 직접 연락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주변 사람이 추천하거나 함께 하자는 활동을 수용하고 따랐다.	①	②	③	④	⑤
2-4. 문화예술 관람이나 취미 활동에 혼자 집중하는 것을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얼마나, 어떻게 즐겼나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3-1. 활동 시간만큼은 다른 일을 잊고 집중했다.	①	②	③	④	⑤
3-2.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는 시간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3-3.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거나 가본 적 없는 곳에 가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3-4. 잘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즐겼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곧잘 표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것을 다음 문항에 따라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4-1. 예술적 기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을 익히고 단련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2.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예전엔 이해되지 않던 문화 활동이나 예술 작품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①	②	③	④	⑤
4-3.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도 살펴보는 자세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4-4. 유행이나 주변 권유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깊게 공감하거나 끌리는 삶의 방식, 문화예술 활동, 예술 작품 등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생활문화 활동 중 참여와 소통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마을 지도자, 동호회 대표, 성남문화재단 등 생활문화 사업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다음은 귀하의 생활문화 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6-1. 생활문화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2. 편안하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3.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4. 생활문화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생활문화 활동 중 일어난 귀하의 소통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7-1. 다른 사람의 말을 끊거나 비판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2. 다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에 긍정적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3. 여러 다양한 사람과 수다 떠는 일이 편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7-4.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생활문화 활동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다음은 생활문화 활동의 영향으로 귀하의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이 변화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생활문화 활동의 영향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9-1.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더 믿고 지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2. 옆집 등 거주지 근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3. 함께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4.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편견과 경계심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9-5.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믿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6. 생활문화 활동 전보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생활문화 활동 중 사람들 간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0-1.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고 생활문화 활동에 회의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2. 개인 의견을 내세우며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3. 다툼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는지 다음 문항에 따라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1-1. 나와 가치관이 상당히 다른 사람을 예전에 비해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성별, 세대, 성격, 관심분야, 정치관 등)	①	②	③	④	⑤
11-2. 국제결혼 여성이주자와 자녀,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미혼모,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만나고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귀하가 행복해졌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생활문화 활동은 귀하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2-1. 생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2-2.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살펴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헤아리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3. 어떤 일이든 관심 갖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3. 생활문화 활동이 귀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나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생활문화 활동 덕분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3-1. 더 행복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13-2. 더 건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13-3.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4. 귀하는 참여했던 생활문화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셨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생활문화 활동과 비슷한 활동에 더 참여하실 생각이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귀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권유하고 싶은가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귀하가 생활문화 사업에 바라는 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귀하는 가족,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귀하의 동호회, 마을 커뮤니티 사람들이 관심 가진 분야의 전문가·예술가를 성남문화재단이 파견 지원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활동 포함)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귀하는 동호회, 마을 커뮤니티를 민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_____)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연구

발행인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이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발행일 2017년 12월 23일
발행처 (재)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성남문화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